현대불교

제 79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음력 6월 3일 · 불기 2554년 · 주간)





'4대강 사업 반대' 생명평화선언

조계종 스님 5000명 서명… 무분별 개발정책 근절 촉구

5000여 조계종 스님이 정부에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7월 8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스님 5000여 명이 동참한 생명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00여 조계종 스님을 대변해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 등이 자리했다.

청화 스님은 "문수 스님은 강에서 돈을 얻으려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잃고, 강에서 부를 찾으면 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놓친다는 것을 깨닫고 소신공양을 한 것"이라며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청화 스님은 선언문을 발표하는 취지에 대해 "4대강 개발중단, 사회부패척결,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자비실천의 유언을 남긴 채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뜻과 의지를 계승하고, 그 숭고한 정신이 널리 퍼져 생명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청화 스님은 "종단 대다수 스님의 뜻이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향을 일으켜 친재벌 정책이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웅 스님이 낭독한 생명평화 선언문에서 스님들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보살행을 이어받아 생명평화의 전기가 마련될 때까지 정진할 것이라며, △특정 구간 1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환경파괴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또 스님들은 국민에게 "선진화 · 세계화 추세에서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에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스님들은 선언문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이 뭇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생명들을 위로하고 살리고자 했던 대자비심의 발로였다"며 "불교도들의 무지와 무관심, 무능력을 참회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死大(사대)강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 며 "48억년 동안 만들어진 4대강이 2년반 만에 한시적인 정치집단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 4대강을 죽이는 정책에 항거하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 스님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수경 스님)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사부대중이 모두 그 짊을 나눠 질 때"라며 "5000여 스님이 힘을 모아 수경 스님의 뜻을 이어가다보면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지관 스님은 답했다.

생명평화선언에 동참한 스님은 직할교구 928명, 중앙종회 81명 등 4812명이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선언문에 대한 동참의 뜻이 전달되고 있어 조계종 스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반대에 뜻을 모으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4대강불교연대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절차적 문제, 법적 타당성 검토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영담 스님 참석말라"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4대강사업 지지 호소문을 발표하기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영담 스님에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7월 8일 오전 열린 종무회의에서 영담 스님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장으로서 호소문을 발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총무부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성타 스님도 본사주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종무회의에 배석했던 조계종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은 영담 스님에게 '오후 2시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쪽 · 저쪽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고까지 말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영담 스님에게 4대강 지지 발언 자리의 참석을 우회적으로 만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무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강행한 총무부장의 행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동섭 기자



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한마당 잔치 광주 무각사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7월 4일 광주 무각사에서 개최한 재한(在韓)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불자들을 위한 법회한마당에서, 법회 후 발야구 경기를 마친 두 팀의 스리랑카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야구 경기를 처음 해봤다. 관련기사 10면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연대 "영담 스님 사퇴하라"

영담 · 성타 스님 "4대강 지지" 물의

조계종 스님 5000여 명의 생명평화선언이 있은 날,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위원장 영담, 조계종 총무부장)는 7월 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은 종교갈등 사안 아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친환경 개발의 중지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영담 스님의 기자회견은 문수 스님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자, 선언에 동참한 5000여 수행자들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불교연대는 "영담스님은 총무부장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소임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영담 스님은 불교방송 이사장과 동국대 이사 소임 등을 맡고 있다.

영담 스님의 참석이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자 종교인도지원위원회는 9일 공문을 통해 "영담 스님의 참석은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폄훼 공동대응

대구 불교계 한뜻

대구지역 불교계가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계속된 불교폄훼 움직임에 한마음으로 대응키로 했다.

대구 동화사 본말사 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 100여 명은 7월 7일 동화사에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기총의 불교폄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기독교계의 공인된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불교를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적절히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화사를 비롯한 전국 광역거점지역과 교구본사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일반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교평화교육을 펼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동화사 '통일대불이 대구지하철 참사를 초래했다' 등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불교폄훼를 계속해 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후원 잇달아

군종교구에 가슴 따뜻한 후원금 답지

"젊은 군인 불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군포교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여력이 닿는데까지 불사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종교구 최대 숙원사업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에 무의탁 독거노인이 생활수급비를 모아 전달하고, 집안의 금 · 은 패물을 모아 교구에 기증하는 등 따뜻한 후원이 줄 잇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 전해준 기획과장은 "6월 중순경 교계 언론의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 안내를 봤다는 부산의 불자부부가 장롱 속에 몇 십년 간직했던 결혼 패물과 자녀들의 돌반지, 퇴직기념 황금열쇠 등 시가 수백만원 상당의 패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패물과 함께 전달한 메모에 "드디어 불법 보시의 인연을 만나,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에 동참하는 인연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 육군훈련소 법당을 잘 지어 달라"고 적었다.

전 기획과장은 "교구장 자광 스님이 패물이 담긴 함을 받아들고 감격해 직접 그 부부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기증자의 정중한 사양으로 마음으로만 대신해야 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한 무의탁 독거어르신과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무의탁 독거어르신은 "조금이라도 군포교에 보탬이 된다면 원이 없겠다"며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아껴 모은 24만원과 52만원을 군종교구에 보내오기도 했다.

또 서울 영등포의 한 불자부부는 함께 불치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처지지만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는 불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102만원을 전달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십시일반 정성으로 보내준 불자들의 정성에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바라는 마음, 전법포교사에 대한 애정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며 "군종교구 대중은 육군훈련소 불사와 군포교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에는 100~1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6월 현재까지 약정을 포함해 34억원이 모금됐다. (02)749-8646

조동섭 기자

▶9 현장-구직자 템플스테이 ▶11-이상돈 교수 4대강 특강 ▶14 선지식-정안 스님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재 양성 필요하다

조계종 교육원, 8일 불교영어대학원 설립 마련 위한 세미나

"불교영어 전문가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당면 문제이다. 불교영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가칭)불교영어대학원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의 중지가 모아졌다.

이날 행사는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의 주제발제로 진행됐다.

불교영어 대학원은 국제화 시대 중생을 제도하고 리드하는 수행자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우선 설립된다.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국내외 국제행사 기획 · 통역, 국내외 템플스테이 · 수련회 지도 등 글로벌 시대의 사찰운영과 포교활성화를 위한 전문승려가 양성된다.

서광 스님은 "오늘날 사회에서 불교가 지도적 위치를 상실한 것은 중생의 필요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글로벌 시대의 불교는 글로벌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영어대학원의 교과과정은 2년제 4학기 특수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영어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비롯해 불교영어 용어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영어불전, 불교 관련 문헌을 습득하게 된다. 영어로 진행되는 명상실습을 비롯해 영어권 수행단체 및 수행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심리학, 사회학, 과학, 종교 등 불교 주제의 학제간 통합학습도 진행된다.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교영어대학원 설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서광 스님(가운데)이 발표하는 모습.

설립안에서는 불교영어 대학원의 졸업이수 학점을 144학점(매 학기당 필수과목 30학점 · 특별과목 6학점 이상)으로 정해 불교영어의 집중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서광 스님은 "불교영어 대학원의 평가는 전체적 · 전인적 접근법을 통한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양적평가보다는 질적평가 방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영어경전 · 논서 · 각종 수행서와 논문과 영어권 불교지도자들의 법문 등을 학인스님 수준에 맞춰 재편집한 교재가 별도로 개발돼 불교영어 용어 · 개념 이해를 돕는다.

또,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단순한 영어수업이 아닌 국제적 안목의 문화예술적 체험을 통한 영어능력 함양을 위해 국내외 영어권 불교수행단체 등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박상필 국제포교사회 회장(불교방송 PD)는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은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언어가 권력인 시대에 영어 포교는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의견에는 참석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종회의원 수현 스님은 "영어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제 포교를 위해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 계획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포함한 외국어 전문 대학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운문사 강사 명법 스님은 "설립안의 교과목이 광범위해 선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영어 통 · 번역에서 중요한 불교용어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의 충남대 前 교수도 "범어가 한자를 거쳐 우리말로 된 것을 다시 영어로 옮기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불교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교영어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은 "스님을 영어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보다 재가자 중 영어 통 · 번역 전문가에게 불교교육을 시켜 전문포교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영어권 지역에서 현지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외국어 습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이다. 특히 불교영어 대학원이면 통 · 번역 등 유연한 언어습득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영어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불교영어 대학원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내년 2~3월 중 개원을 목표로 한다. 학년별 7~8명, 전체 15~20명 규모로 설립하면 정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영어전문사찰을 지정해 학인스님들이 영어로만 생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외국에서 유학하는 것과 유사한 학습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원은 지속적인 종도 의견 수렴과 별도로 8월 중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 희망 기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중 교류의 불꽃 펴길"

짱씬선 주한 중국대사 자승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짱씬선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임한 짱씬선(張鑫森) 주한 중국대사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짱씬선 주한 중국대사는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한중 불교 교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짱씬선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불교계의 도움으로 중국 칭하이성 지진 피해 복구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대사님의 부임 기간 동안 한중 교류의 불꽃이 활짝 펴길 바란다"며 "한중 불교교류와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0월 한중일 대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배석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불교가 한중일 삼국의 우호증진과 동북아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역경원 이정도일 줄 이야

무비 스님 취임 2개월만에 사퇴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이 취임 2개월 여 만에 돌연 역경원장직을 사퇴했다. 운허 · 월운 스님의 원력을 이어 제2의 도약을 준비했던 동국역경원은 무비 스님의 퇴임으로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동국역경원 관계자는 "무비 스님이 6월 8일 역경원장직을 사퇴했다. 갑작스런 스님의 사퇴에 학교 측은 사직 처리를 미룬 채 쉬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무비 스님은 동국대가 前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지 1년 6개월 여 만인 지난 4월, 월운 스님의 추천으로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했다.

동국역경원 관계자는 "취임 후 동국역경원의 편제, 인력, 예산 등을 살펴 본 무비 스님의 고민이 컸다. 동국역경원의 낮은 위상 등 산적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주변인들에게 "취임 전 동국역경원이 이정도일 줄 몰랐다. 역경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의미하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역경불사를 수행하는 동국역경원장 자리가 명예직인줄 알았던 것 아니냐. 인력 예산 등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들이 거친 일이라 못하겠다는 무비 스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무비 스님의 사퇴는 관심과 지원 없이 원력과 신심만으로 역경불사가 이뤄질 줄 아는 풍토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역경불사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108배 참회하고 사과해야..."

명진 스님, 이동관 홍보수석 참회 촉구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안상수 의원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는 대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참회를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7월 4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안상수 前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흡족하진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떨어진 도덕적 수준을 감안하면 그 정도 표현도 도덕적이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동관 홍보수석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고발 건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봉은사 부처님을 찾아와 108배 참회하고 마음 상한 신도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참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한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6월 21일 국회에서 "(봉은사 외압 의혹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승려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동관 수석은 4월 13일 명진 스님이 일요법회 내용을 문제 삼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동섭 기자

사찰부동산 처분 수익금 법제화

조계종,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공포

사찰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수익금이 목적불사에 사용토록 법제화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6월 29일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을 제정 · 공포했다.

시행령은 3월 제18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사찰부동산 처분시 수익금의 용처를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계종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시 수익금은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불교회관(전법회관) 건립 △포교소 건립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 건립 등 목적불사에 사용토록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사찰소유의 망실 · 유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종단 목적사업기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 앞 동산불교회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www.dongsanbud.net

2010년도 후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 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1. 교과목 및 교수

	교 과 목	교 수
1년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정병조교수(동국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대학)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권경희교수(서울대학원대학)
2년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대학), 장엄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모집인원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80명),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3.입학일시 : 불교학과 2010년 8월 7일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4.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년 7월1일 부터 접수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초발심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유마경(1), 증국고젠(장자) 등	심만춘교수	9월 9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T-테이블셋팅,(한국, 중국, 일본, 유럽 차문화사) 제다학(1),(2) 한국의 현다래	오양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9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불교학과목요반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20명)	불교포교론	활 안스님	9월 6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수행론	김형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수증론(2)	최봉수교수	10월 7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신전	김진숙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4일(매주-토) 오후2시
범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	인각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3시

본회사무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팜플렛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학 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

절반 지난 MB정부 불교공약 이행 소걸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당선일을 기준해 6월 19일로 절반을 지났다.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에 7대 공약을 내걸었다. 임기 절반을 남긴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대선 공약은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불교계 대선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점검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대통령의 불교정책 공약은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계종 총무원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07년 11월 1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가 서울 하림각에서 개최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불교정책 공약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이 불교계에 공약한 사항은 △불교문화재 유지 · 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증대 △연등축제의 국가 전통문화축제 지정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 통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추진 △대통령비서실에 불교인 임명 △남북 불교 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 △(가칭)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등이다.



2007년 11월 1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개최한 이명박 후보 초청 토론회 간담회 모습.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정부 측 성실 이행 주장에 반해 불교계 반응 미온적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약이행 관리감독해야

#불교관련법 일원화… 요원

불교계, 특히 조계종은 종단 소유 부동산 대부분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40여 년간 이중 삼중의 법적 규제와 재산권 침해에 숱한 불편을 감수해 왔다.

조계종은 2009년 7월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사찰에는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해제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불교 단체마다 성명서 발표가 줄이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시민사회비서관실 구기복 과장은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 법규가 조계종과 협의 하에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불교문화 예산 증액 지원… 허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는 불교문화와 유적을 계승 · 발전시키겠다"며 불교문화 활동 및 문화재 유지 보수예산의 증액을 약속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유산 보전 등에 지원한 예산은 587억원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90억원, 2008년 501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사업내용 변동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예산이 올라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역별 불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불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경북 군위군은 <삼국유사> 집필처인 군위 인각사를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해 불교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불교문화행사 지원… 그나마 만족

문광부 조창희 종무실장은 공약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연등축제에 1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연등축제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다"며 "연등축제의 국가 전통문화축제 지정에도 불교계와 문화재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어디?

정부는 조계종 소유의 목동 국제선센터가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광부 종무실 정시화 사무관은 "목동 국제선센터에 2007~2009년 19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과 종단협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종단협 권재한 간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종단협서 부지선정 등이 늦어져 정부에 지원요청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85명 청불회원으로 체면치레

청와대에 불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불자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정부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구기복 과장은 "청와대에 불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정무수석실 산하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산하 문화체육관광비서실 두 곳이 있다. 이들 2개 부서에 불자행정관 3명이 근무하며 청와대 전체로는 85명의 불자가 근무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재위원 불교계 인사… 변동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재위원회에 불교문화재 관리 전문성을 갖춘 불교계 인사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으로 수경 · 미산 스님을 위촉한 바 있다.

청와대 구기복 과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문화재위원 120명 중 불교계 인사는 5명(4.2%)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문화재위원 수는 120명에서 80명으로 줄었으나 불교계 인사는 스님 두 분을 포함한 7명(8.7%)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얼마나 많은 스님이 문화재위원에 임명됐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스님 위원이 2명인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팀장은 "문화재위원회 9개 분과 중 불교와 관계가 적은 2개 분과를 제외한 7개 분과마다 스님 위원이 한 분씩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대 공약	내용	교계평가	정부평가
불교 관련법 개정	불교관련 규제법 일원화	추진 중	추진 중
불교문화 계승 · 발전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 지원 증액	미흡	이행 중
	권역별 불교문화권 개발 사업 추진 등	미흡	추진 중
	불교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지원	불이행	추진 중
불교문화 행사 지원	연등축제를 국가 전통문화축제로 지정	추진 중	추진 중
	불교문화 조화된 소리나눔 한마당 신설	불이행	이행 중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국제불교문화센터 건립	불이행	이행 중
	해외반출 문화유산 반환추진 사업 지원	미흡	이행 중
	2012년 세계불교도대회 개최 지원	–	–
화해 상생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집행	10 · 27법란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미흡	이행 중
	대통령비서실에 전통문화담당 비서관 신설 및 불교인 임명	미흡	이행 중
	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정부육성 청소년단체로 지정	이행 중	이행 중
	문화재위원 불교계인사 비중 확대	불이행	이행 중
북한불교문화재 연구 · 복원 지원	남북불교교류 적극 지원	중단 중	중단 중
	북한문화재 연구조사 · 복원사업 지원	중단 중	중단 중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미흡	교계 반대
	문화재관람료 관련 갈등 해소	미흡	추진 중
	폐사지 관리 및 복원시스템 구축	미흡	이행 중
	불교문화유산 정책 수립 및 지원	미흡	이행 중

#경색된 남북관계, 중단된 남북 불교교류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활성화시키겠다"던 남북 불교교류 관련 사업 지원 약속은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불교계와 정부 모두 "거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10 · 27피해보상… 불교계가 소극적

반면에 10 · 27법난 피해보상건의 경우 불교계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인성호 행정관은 "10 · 27법란 피해자 스님 중 다수가 피해보상 신청을 명예스럽지 못하다며 꺼려해 피해보상 진행이 미진하다"고 말했다. 10 · 27법난위원회가 파악한 수는 200여 명이나 정작 피해보상을 신청한 스님은 6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정부육성 청소년단체 지정 공약은 불교계와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지다 미뤄진 경우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한곤 사무국장은 "2008년 조계종 기획실과 문광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타건을 쉬운 문제이니 미루자고 해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파라미타를 조속히 정부육성 청소년 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공약은 정부에서 관련법령을 만들었지만 정부와 조계종의 의견이 달라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불교전통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려 했으나 조계종이 종단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불교계서 공약 상시 점검해야

불교계와 정부의 시각 차이에는 불교계의 공약 이행 관리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 지적도 있다. 불교계에서 공약별 체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만 "됐다" "안됐다"를 따진다는 것.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 중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서서 해준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도 있고 상당부분 진척된 것도 있다. 무조건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해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적인 평가에 치우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문광부 종무실을 중심으로 불교계 대선 공약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조창희 종무실장은 "문광부 종무실에서 불교 공약 이행 정도를 살펴 주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2년 반이 지난 지금 조계종 총무원에는 이명박 후보가 건넨 한나라당 불교정책 공약만 있을 뿐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은 되지 않고 있었다.

조계종 기획실 김영일 차장은 "특별히 대선 공약을 관리해오지는 않았지만 국립공원 등 현안 별로 대응해왔다"고 해명했다.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인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으로, 불교계 공약은 불교계와의 한 약속이다. 약속이 지켜지려면 줄 듯 말 듯 미지근한 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가 꼼꼼하고 면밀하게 공약 이행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법사 방필석

耕當問奴 (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신생아
작명
개명. 아호. 상호
역학개인지도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現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수상서울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9-8259 (빨리오구), FAX 730-8528
전화신청환영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계좌번호: 306-07-194422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 국 민 속 철 학 연 구 소 법사 방 필 석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일 주 문



봉은사 2011 대학입시 특강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8월 4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이석록 메가스터디 평가연구소장 초청 2011 대학입시특강을 개최한다. (02)511-6070



조계사 수능 111일 화엄신중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7월 30일~11월 17일 2011학년도 대입수능을 맞아 111일 화엄신중기도를 봉행한다. (02)732-2183



파주 보광사 부모은중경 여행

파주 보광사 주지 초격 스님은 7월 23~25일 경내 설법전에서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31)948-7700



경주 기림사 불교사회인 야구대회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은 7월 24~25일 경주생활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제1회 불교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054)744-2292



서울노인영화제 영상공모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은 7월 19~30일 '제3회 서울노인영화제 영상공모전' 작품을 모집한다. (02)739-9501



제40회 충남사진대전 대상

아산 해원사 주지 성효 스님은 6월 27일 천안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제40회 충남사진대전'에서 작품 '독경삼매'로 대상을 수상했다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추대

(사)대한불교원융종은 제8대 총무원장에 체의 스님을 추대했다. 스님의 취임법회는 28일 총본산인 구로동 원융사에서 봉행된다. (02)853-0531



공무원불자연합, 중국 성지순례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7월 25일~8월 1일 중국 광저우성과 쓰촨성 일대에서 제9차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한다.

東大, 미래기반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 25억 원 수주



김동억 동국대 의학과 교수는 '맞춤형 급성뇌경색 치료를 위한 뇌신경혈관계 분자표적기반 나노분자영상 기술개발'로 교과부로부터 5년 간 총 25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 과제인 맞춤형 혈전용해 치료기술은 한국 단일질환 사망률 및 장애 유발률 1위 질환인 뇌졸중 질병 중 급성 뇌경색의 치료에 쓰인다.

■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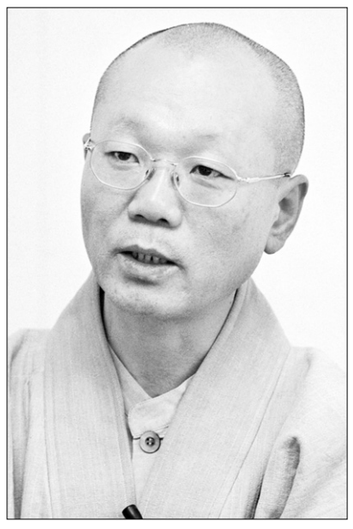
"광덕 스님의 사상과 전법행 계승"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행모델을 개척해 도심포교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한 광덕 스님(1927~1999)의 사상과 전법행을 계승하는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 · 사진)이 7월 10일 개원했다.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사이신 광덕 스님은 살아계실 때 불교사회과학 연구소를 설립해 불교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스님의 유지를 이어 불광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근대화 · 서구화의 격랑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는 새의 두 날개처럼 한국불교를 받쳐준 선지식들이 있어 가능했다. 수행과 정법을 위해 신명을 바친 선승들과 교화와 전법을 위해 헌신한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며 "'부처님 법대로!'를 기치로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이 수행가풍 진작과 조계 종지를 드높인 선지식이라면 불광법회를 창립하고 잠실벌에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 스님은 전법 교화로 불교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선지식이었다"고 평가했다.

광덕 스님은 1982년 불광사를 창건한 이후 한문으로 된 의례를 한글화하고,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행모델을 개척함으로써 도심포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로 대표되는 법 중심의 신행체계를 확립해 기복불교의 한계를 넘어



한국불교가 지향해야할 현대적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홍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덕 스님의 사상과 공적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객관적 평가가 뒤따르지 못했다. 이는 수행과 사상을 담당해 온 선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조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며 아쉬워 했다. 이런 아쉬움이 불광연구원 개원의 밑거름이 됐다. 지홍 스님은 광덕 스님의 뜻에 따라 한국불교가 직면한 제반문제에 대해 폭넓게 연구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연구원은 선지식들의 전법행을 잇고 한국불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자 △인물 △사상 △전법 △신행의 연구범주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년에 5차례에 걸쳐 10개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제출된 원고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광덕 스님과 관련한 학술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지홍 스님은 "불교는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개항을 맞이했다. 외세와 서구종교의 유입과 함께 밀려온 서구문물과 사조는 불교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낡은 과거의 유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지난 100년간 한국불교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4대문 안으로 승려들의 출입조차 금지됐던 상황에서 다시 한국의 대표적 종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불교의 환경적 조건은 좋아졌으나 소프트웨어(신행, 포교, 수행 등의 프로그램)는 실제에 맞게 준비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홍 스님은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뜻을 계승해 무명을 밝히는 사바의 빛이 되기를 서원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서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국제선센터 선원장 효담 스님 임명

원통 스님, 외국인승려로는 첫 소임자

개원을 앞둔 국제선센터의 소임자가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7일자로 국제선센터 선원장에 효담 스님, 총무국장에 법원 스님, 국제국장에 원통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임명장 전달 후 "주지 현조 스님을 중심으로 국제선센터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이르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국장 원통 스님은 폴란드 출신으로 외국인 스님으로서는 처음 중앙종무기관 및 유관기관 소임자에 임명됐다.

자승 스님은 원통 스님에게 "국제선센터에 적합한 외국인 스님을 찾기 위해 5개월 여를 검토했다. 원통 스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효담 스님



법원 스님



원통 스님

선원장 효담 스님은 1986년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지산 스님. 각화사 태백선원, 실상사 백장선원, 범어사 금어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영축총림선원, 해인총림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총무국장 법원 스님은 1996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은사는 보광 스님이다.

국제국장 원통 스님은 1996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6년 10월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폴란드 출신으로 은사는 행원 스님이다. 기본선원과 조계총림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조동섭 기자

"이후 활동 더 기대한다"

김종욱 교수 · 보각 스님 불이상 수상



제25회 불이상 시상식 뒤 수상자 · 심사위원들과 불이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왼쪽부터) 김성철 교수, 최병헌 명예교수, 불이회 이명희 부회장, 윤용숙 명예회장, 홍라희 회장, 보각 스님, 김종욱 교수, 심산 스님.

불이회(不二會 · 회장 홍라희)가 제정한 제25회 불이상 시상식이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제25회 불이상 수상자는 연구분야에 김종욱(동국대 불교대학) 교수가, 실천분야에 보각 스님(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묘희원 이사장 · 중앙승가대 교수)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씩이 전달됐다.

심사위원장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심사보고를 통해 "김종욱 교수는 불교학의 영역을 넓히고, 방송 강의 등으로 불교의 대중화에도 기여했다. 보각 스님은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및 운영으로 불교 복지사업의 사회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김종욱 교수와 보각 스님은 그동안의 성과도 훌륭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종욱 교수는 불교학과 철학, 심리학, 생태학 등의 관계를 연구하며 불교사상을 체계화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보각 스님은 1994년부터 삼전종합사회복지관, 1995년 원주 소쩍새 마을 등을 위탁운영 하며 불교계의 대표적 장애인 시설로 성장시켰다. 2004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를 설립해 연로한 스님들과 소외 노인 계층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 스님은 2010년 들어서 비구니 노스님들만을 위한 노후생활공간인 '심우당'을 경기도 화성에 건립 중이며, 27년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김종욱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불교는 철학 · 과학과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종교"라며 "이 상을 받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부처님 사상을 펼치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각 스님은 "부처님 자비는 말이나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씨를 잘못 쓰는 건 신체적 장애보다 훨씬 더 큰 장애"라며 "불교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좀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25회 불이상 심사는 최병헌,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김성철 동국대 불교대학 부교수, 불이회 심사단이 맡았다.

1985년 제정된 불이상은 재가여성불자 모임인 불이회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 단체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편 불이회는 한국 불교계의 활성화와 새로운 재가 불교, 여성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1974년에 설립됐다.

박선주 기자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고운사 여름수련회

시작	종료	기간	프로그램명	주요프로그램	참가비	인원	비고
7/24	7/26	3	어린이 여름 수련회	참선, 예불, 반별특별활동	5만원	100명	어린이
7/30	8/1	3	중, 고생 영어 여름수련회	영어 반야심경, 팝송배우기, 모둠북배우기	7만원	60명	중·고생
8/3	8/5	3	일반인 1차 수련회	초발심 자경문, 자연염색, 참선, 예불, 발우공양	10만원	50명	일반인
8/6	8/8	3	일반인 2차 선 수련회	하안거 참선수행(참선, 운력, 예불, 발우공양)	10만원	50명	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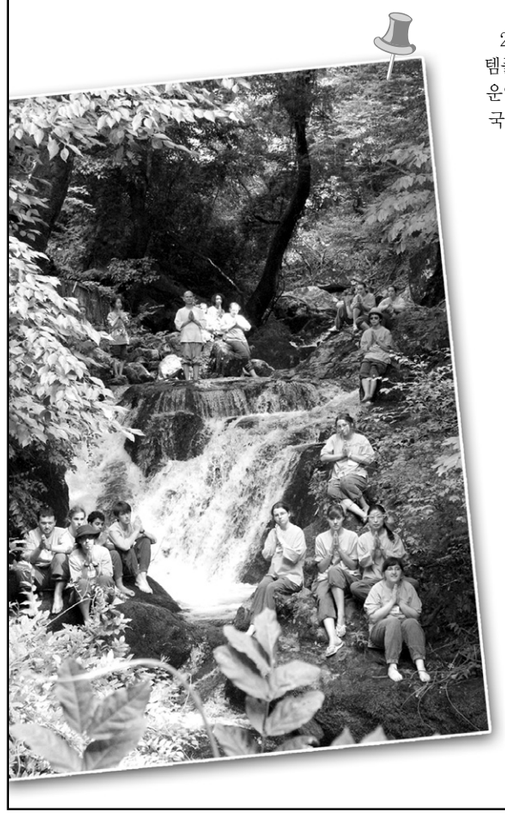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gounsa44@hanmail.net) ☎ 054)833-6933



☸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갑사

공주 문화유적관람과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



2010년 대전, 충청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주시 후원으로 갑사의 템플스테이와 공주 문화 유적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2박3일 여름 수련회 일정 중에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주 국립박물관,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중인 석장리박물관을 관람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1차 : 7월 23일 ~ 7월 25일(금~일, 2박3일) 40명(초등 4~6학년, 중학생)
*1차일정에는 도예체험이 있습니다.
2차 : 7월 30일 ~ 8월 1일(금~일, 2박3일) 40명(가족과 함께)
3차 : 8월 6일 ~ 8월 8일(금~일, 2박3일) 40명(일반)

□ 참 가 비 : 어린이 50,000원 / 중·고등학생 60,000원 / 일반 80,000원

□ 참가방법
1) 신청 - 갑사 홈페이지(계룡산 갑사:www.gapsa.org)에서 접수
- 선착순 접수마감(운행차량이 없으므로 개별 도착)
2) 입금 - 농협 457017-51-056540 (예금주 : 갑사)
3) 도착시간 - 오후 2시 30분

□ 준 비 물
1)칫솔, 수건, 운동화, 모자
2)초등, 중학생은 수련복 없이 상의(면티)만 지급되므로 여벌옷준비

▮ 1박 2일 템플스테이 ▮
• 수행형 템플스테이 - 매월 둘째 넷째 주말(토,일)
- 단체일 경우 프로그램, 일정(주중) 조절가능
• 휴식형 템플스테이 - 주중가능(누구나) 전화접수
• 동참금 : 어린이 2만원, 청소년 3만원, 일반 4만원
※ 문의사항 - 갑사 종무소(041)857-8981~2

☸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갑사



사찰도서관 개관 남양주 봉영사(주지 혜만 · 왼쪽에서 두 번째)에 사찰도서관이 개관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백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은 7월 7일 '부처님글사랑, 남양주 봉영사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을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부처님글사랑' 현판 및 백천불교문화재단이 기증한 1000여 권의 불서와 기증서가 전달됐다.
혜만 스님은 "앞으로 봉영사 사찰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사찰도서관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사찰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

석학강좌 – 변규백 작곡가

"찬불가 전담 심의기구 있어야"

"불교종단에는 아직도 찬불가를 심의하는 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교의 음악성을 반영치 못하는 찬불가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는 전문 기구의 창설이 필요합니다."

찬불가계의 거장, 변규백 작곡가(67)는 7월 6일 서울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열린 '불교문화정보연구원 석학강좌 시리즈–불교와음악'에서 찬불가의 전통선율 적용을 강조하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의 창설을 주장했다.

변 작곡가는 "찬불가의 선율은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가사와 일치해야 한다"며 "다른 종교곡의 대표작을 보아도 음악적인 모국어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완성도와 예술미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작곡가는 이어 "현대 많은 찬불가들이 개신교의 찬송가 선율과 왜색 선율을 많이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한국불교의 멋과 미를 표현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변 작곡가는 그 대안으로 "찬불가를 검토하는 심의위를 통해 현재 이웃종교 등의 풍이 혼재된 찬불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와 가톨릭, 성공회 등에서 찬송가 심의기구를 통해 곡의 구성과 작곡가의 신행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모 등에서 선별하는데 비해 불교계는 이웃종교 작곡가가 찬불가 작곡을 해 불교 선율의 미반영이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 작곡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후배 작곡가들이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변 작곡가는 "찬불가 창작활동에서 불교계 작곡가들이 우선 불교교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불교수행을 닦고 있어야 한다"며 "완성도 높고 감동적인 찬불가를 위해서 경전을 바탕으로 한 가사 등을 도입하는 등 불교만의 색채를 드러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작곡가는 "특히 가사는 선율보다 더 불자들의 신심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심 고취란 찬불가의 주목적 상 매우 중요하다"며 "찬불가 창작에서 가사 내용은 작곡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곡가 스스로의 신행활동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스님들 산중장터 '승시' 가볼까

승시 재연 조직위 결성… 8월 27~29일 동화사 인근서 열려

대구 팔공산에 고려 · 조선시대 스님들의 산중장터인 승시(僧市)가 재현된다.

대구 불교계는 7월 6일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팔공산 승시 재연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결성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결성을 시작으로 8월 27~29일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일원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팔공산 승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허운 스님(대구불교방송 사장)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전통 승시를 되살려 디지털 세상과 어울리게 재연할 적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동화사를 비롯해 해인사, 송광사, 용주사 등 전국 20여 사찰과 100여 불교단체가 참가한다. 행사에서는 전국 사찰에 전해지는 승시 관련 물품들이 한자리에 진열된다. 행사장에서는 승시마당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다도와 사찰음식 시연, 공연, 전시, 전래놀이 등 6개 마당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승시마당에는 연밥요리, 발우제작, 죽염만들기, 가사승복제작 등을, 불교문화체험마당에는 목탁만들기, 선무도체험, 불교목판화, 불화그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마당에서는 목어, 운판, 법고, 범종 등 사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영상물 등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된다.

다도와 사찰음식마당에서는 곤드레밥과 메밀묵 만들기, 장아찌 담그기, 국화차 제조 및 시음, 차명상 체험 등이 선보이고 공연마당에는 사찰학춤, 회심곡 등이 펼쳐진다. 전시와 전래놀이마당에서는 전통등과 전통다비장이 재현되고 굴렁쇠, 투호, 비석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동화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조선왕조실록>과 정시한(1625~1707)의 <산중일기> 등에 소개된 승시 관련 부분을 참고해 재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에도 승시를 열어 외국인에게도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나누우리 라오스에 학교 건립

라오스 문교부와 지원협약 체결… 내년 준공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이 6월 30일~7월 6일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푸앙프라방 교육청장과 학교건립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라오스에 학교 건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한다.

나누우리(이사장 월운)는 6월 30일~7월 6일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문교부와 학교건립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나누우리는 라오스 문교부의 행정 지원 속에 라오스에 초등학교 건립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누우리는 10월 라오스 문교부와 학교 건립 예정지를 확정하고, 나누우리 창립 1주년에 즈음해 내년 3월 준공식을 봉행한다. 학교 건립 후에는 나누우리 봉사단이 매년 학교를 방문해 건물 보수 및 학업 · 의료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앞서 나누우리 대표단은 비엔티엔 왓코아루앙사원의 승가대학을 방문해 학용품을 전달했다.

또 고산족마을인 반 후아이히아 마을의 후아이 초등학교와 반라파이 마을의 홍이안 라파이 초등학교를 찾아 구호물품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후원문의 (02)734–7756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통도사 조계종에 승가교육진흥기금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통도사 부주지 현근 스님에게서 승가교육진흥기금을 전달 받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통도사가 재해 구호 등 종단 모금 사업에 항상 앞장서줘 고맙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통도사가 다른 곳은 모두 관심이 많은데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짓는데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군법당 건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연구원 '원전연구' 13집 원고 모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2월 31일 발간 예정인 <원전연구(原典硏究)> 제13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는 범어, 빨리어, 티베트어, 한문 등의 원전을 대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분량을 제한하며 12월 10일까지 이메일(kimjinmoo@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는 <원전연구>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02)2260–8508 **이나은 기자**

한암사 14일 불지사리 친견법회 봉행

천안 한암사(주지 원철)는 7월 14일 불지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입재식에는 100일 기도와 함께 제주 관음사 원종 스님을 초청해 법문과 <금강경>독송 등이 진행된다.이어 9월 1일에는 천안 각원사 대원 스님을 초청해 50일기도 회향법회를, 10월 21일은 부산 범어사 정여 스님을 초청해 100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원철 스님은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후 사리탑을 세워 모시고 공양 올릴 것을 권하고 있다"며 "사리를 친견하고 공양을 올림으로써 얻게 되는 복덕은 한량없다. 많은 분들이 이번 법회를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041)592–4747 **이은정 기자**

'불교평론' 열린논단 이시우 박사 특강

천문학을 통해 불교의 세계관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간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 7월 15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논단' 7월 모임을 개최한다. 이시우 박사(서울대 명예교수)가 '천문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회비 1만원. (02)739–5781 **조동섭 기자**

대성사 베트남 끄엉사와 결혼 협정서 교환

태고종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와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 끄엉사(주지 팜 응옥 끄엉 스님)는 6월 29일 한국과 베트남 선남 · 선녀의 건전한 국제결혼에 상호 협조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정서 교환에 앞서 혜철 스님은 한국에 딸을 시집보낸 베트남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 결혼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었다. 또한 베트남 결혼풍습과 현지 커플매니저들에 의해 주선되는 선남선녀의 맞선 현장 등을 찾았다. (043)732–5560 **혜철 충청지사장**

휴가를 몸과 마음 쾌청하게

단식 · 참선 삼매체험 집중수련 5일/30일/50일/100일

산사에서 참선 단식 다이어트

금강단식 온단식 : 국민단식으로

"단비" 집중력 · 사고력 · 성적 UP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무겁고 어두운 몸과 마음을 단식과 참선(화두)로 대전환 한다.

◆행복참선학교 : 토요일 10시 30분

기적의 금강단식 단식참선의 획기적 효과

– 바로 끊고 바로 먹고, 요요현상 제로 –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고혈압 당뇨 체질개벽 해독 피부미용 여드름 · 아토피 여성병(생리불순, 폐경, 생리연장)
○ 금연,금주,위장,대장,소장 등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
○ 통찰로 지혜의 극치에 도달, 운명 천성이 바뀜.
○ 심신개벽,자신감,신념증대,창의성,능력개발,성격개조
○ 우울증,신경쇠약,정서안정,공포불안,대인관계 인내심,집중력,기억력
○ 물만 마시고도 각종 난치병 ·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금강단식으로 몸과 마음이 활기회복
○ 예비감식 보식 없음

청소년특별프로그램 "단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과 사고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릴 단기출가 선 수행 프로그램인 "단비"를 운영한다.

〈특징〉

권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없애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권 집중력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태도 전환을 갖게 됩니다.
권 사고력의 확장으로 정서, 자신감, 정신적 안정에 도달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확고한 토대를 이룹니다.
권 참선을 통한 인생관을 확립합니다.

단기출가 4박 5일 일정

차 수	날 짜	대 상	장 소	회 비
1차	7.17 ~ 7. 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신청회비 60만원 (장려금 20만원 지급, 10일전 신청완료. 10만원지급) * 1차에 한하여 3일 전 적용
2차	7.23 ~ 7. 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3차	7.20 ~ 8. 3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4차	8. 6 ~ 8. 10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5차	8. 12 ~ 8. 16	청소년, 대학생, 일반	제주 원명선원	
매일정기 1회 실시	9. 19 ~ 9. 23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10. 22 ~ 10.26	청소년, 대학생, 일반		
	11. 26 ~ 11.30	청소년, 대학생, 일반		

30일 50일 100일 단기출가

날 짜	기 간	날 짜	기 간
7. 17 ~ 8. 14	30일	11. 12 ~ 12. 11	30일
7. 17 ~ 9. 4	50일	11. 12 ~ 2011. 1. 1	50일
		11. 12 ~ 2011. 2.26	100일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끌어 올려 영원한 삶으로 바꿔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젊음은 젊음대로, 황혼은 황혼대로 값진 삶으로 인도해 줄 단기 참선출가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룹시다.

문의신청 ☎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전문도량 활活인人선禪원院 (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만족도 높지만 불자들 무관심이 문제

서래노인요양센터, '어르신들 요양보호사 선호' 청년불자들의 참여 바래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의 바람이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 · 빈곤 · 고독 ·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라 볼 수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 이하 대불청)에서는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불청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서래노인요양센터(센터장 윤형숙)를 설립해 요양보호사들과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이나 요양원을 가지 못하는 어르신을 연결해 주고 있다. 방문 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일상생활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래노인요양센터에는 요양보호사 20명이 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을 판정받은 어르신들(15~20명)에게 월~금요일 하루 4시간씩 방문 요양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80시간)을 일하고 급여로 52만원을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다. 요양보호사들은 방문목욕, 방문요양,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도우며 각 가정의 노인수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불청이 서래노인요양센터를 개소한 것은 청년 불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활동력 향상 등을 고민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대불청은 재가 노인복지센터를 개소해 청년 불자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함으로서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불교계는2009년 개소한 서래노인요양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재가 방문해 노인을 돌보는 모습. 대불청은 청년 불자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재가 노인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이 남는다. (사진=현대불교DB)

서래노인요양센터 20명의 요양보호사 중 4명이 불자이고 나머지는 개신교이다. 서래노인요양센터가 설립될 무렵, 윤형숙 센터장은 서울 근교의 사찰을 다니며 법회 시간에 대불청의 서래노인요양센터에 대한 홍보를 한마디만 해 달라고 했지만 종무소 직원들이나 스님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윤 센터장은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문제는 불자들의 무관심이다. 특히 어르신들은 불자 요양보호사를 선호하는 만큼 청년 불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보람 사회복지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방문 요양센터는 없지만 산하의 복지관, 노인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대불청이 부설로 운영하는 서래노인요양센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화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8년 4월 개설된 화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지금까지 180여 명이 요양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이보람 사회복지사는 "현재 활동하는 분들은 20여 명이다. 이들 중 2명이 서래노인요양센터에서 방문 요양서비스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래노인요양센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 수급대상자 어르신은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어르신은 매월 15%(장기요양보험 △1등급 17만 1000원 △2등급 14만 5500원 △3등급 12만 2100원)를 부담해야 한다. (02)939-0079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가치있는 일하는 지도자들께 감사

지도사 평가회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6월 29일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1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상반기 지도사 평가회'를 열었다.

평가회에서는 교육 지도사 22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활용해 모의수업을 하며 서로의 교수법을 참관하고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및 양육지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진오 스님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실시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더 많이 알게 됐다. 그 어려움을 돕는 것이 지도사의 역할이다.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지도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어 지도사 조현아씨는 "다문화가정에 처음 방문 교육을 나갔을 때 힘들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어 실력이 늘고 수업시간을 기대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은 교육 지도사를 양성해 다문화 가족의 아동 양육을 돕고 부모 역할 정립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9일~6월 28일 1차 방문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다문화가정 89곳에서 한국어 교육 · 임신 출산 · 아동양육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2차 사업은 8월 2일~12월 19일 88가정에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경북 김천시와 칠곡군이다. 방문교육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439-8279)나 칠곡군청(054-973-3321)에 신청 · 상담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선주 기자

"소통의 장 널리 알릴 것"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김희라씨 위촉

원로배우 김희라씨가 제3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7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우 김희라씨를 제3회 대한민국 서울노인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노인영화제는 '노인'과 '미디어'를 매개로 세대간 소통이 가능한 축제의 장으로서, '노인이 직접 제작한 영화'와 '노인을 주제로 한 영화'로 나누어 노인 뿐 아니라 젊은 감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관장 가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세대의 감성과 시각이 담긴 영상을 출품해 노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깨우고, 우리 사회의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의 영상을 통해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희라씨가 영화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홍보대사 김희라씨는 "많은 분들이 노인영화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일단 그것을 알리고 젊은이들이 가진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깰 것"이라고 말했다. 제3회 서울노인영화제는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4층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02)739-9501



가섭 스님과 김희라씨가 홍보대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2008년 시작된 이래 노인 영화감독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선주 기자

▌생명나눔 이달의 환우 박선미씨

엄마만 건강하게 옆에 있어준다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 이하 생명나눔)는 매달 한 명씩 어려운환경에 처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7월의 환자는 화염으로 화상(심재성 2~3도, 54%)을 입은 박선미(여 · 44세)씨이다.

2010년 5월 14일 예기치 못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박선미씨. 박씨는 현재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다섯 차례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했다.



생명나눔이 선정한 이달의 환자 박선미(오른쪽)씨와 아들 태호. 태호는 집이 화재로 전소 돼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엄마 병문안은 빼먹지 않는다.

아직 치료를 여러 차례 더 해야 하지만 고액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술을 중단한 상태이다. 피부이식수술을 위해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7년 전 이혼한 선미 씨는 간질과 우울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모자는 국가에서 나오는 68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태호의 소원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그저 엄마가 빨리 나아서 건강해 지는 것이다. 엄마만 건강하게 옆에 있어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박선주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30집 발매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불기 2554년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찬불동요 앨범 '풍경소리 30집'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30집에는 총 8곡(△부처님 맞이 △우리스님의 부채 △부처님이 될테야 △Let's start △푸른 잎 차 △별과 달에게 △빌고 빌어요 △우리스님 회색 옷)이 수록돼 있다. 또 반주음악도 실려 있어 어린이들과 지도교사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수월하게 했다.

풍경소리 30집에 담겨있는 음악들의 음원은 키즈붓다홈페이지(www.kidsbuddha.org)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CD구입을 원한다면 좋은벗 풍경소리에 문의해 구입할 수 있다.

이종만 기획실장은 "30집의 앨범이 나오는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인연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심산 스님(동련 이사장 · 홍법사 주지)이 500개를 사셨다. 앞으로 찬불가를 사랑하는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1996년 첫 찬불동요앨범을 선보이고 1년에 두 차례씩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02)723-9836

박선주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국내 최초 '티베트어 한글사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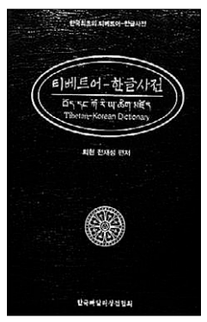
3만7000여 단어 수록… "불교 언어 원형 의미 밝히는데 필수"

<법구경-담마파다> <앙굿따라니까야>등 빨리어 초기경전 번역활동을 통해 부처님 원음 재현에 일생을 바쳐온 전재성 박사(57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가 국내 최초로 <티베트어-한글사전>을 출간했다.

이번 사전 출간을 계기로 인도-티베트-중국을 거치면서 한국으로 건너온 초기 및 대승불교 경전의 오역(誤譯)및 중역(重譯)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재성 박사는 "8세기 무렵 인도 불교의 몰락이 시작됐고 13세기에 이르러 이슬람이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많은 스님이 초기 경전을 들고 티베트로 건너갔다"며 "인도에서 소실된 경전들이 티베트에는 남아있고 중국의 대승경전들도 티베트어로 번역돼 있어 <티베트어-한글사전>은 불교 언어의 원형적 의미를 밝히는데 필수"라고 설명했다.





<티베트어-한글사전>(한국빠알리성전협회刊).

전재성 박사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면 티베트어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베트어-한글사전>에는 총 3만7000여 개의 단어들을 수록하고 있다. 티베트 여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간단한 티베트 회화를 수록했고 티베트 역사와 달라이 라마의 계보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사전은 현대 라싸어를 표준으로 채택해 어휘와 발음을 통일시켰다. 현재 티베트본토가 중국의 자치주로 편입된 만큼, 새롭게 티베트어에 녹아 들어간 중국어를 포함해 많은 현대적 어휘와 방언들을 실었다.

전 박사는 "이 사전은 현대어를 위주로 했으나, 방대한 대장경을 통해 오랜 역사가 지났음에도 문어적으로 고정돼 크게 변화를 겪지 않는 티베트어의 특성상, 고전 티베트어의 해석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몄다"고 밝혔다.

또한 전 박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티베트어의 중국식 발음체계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티베트어의 함부르크식 알파벳옮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성조체계를 도입하는 퇴현(전재성 박사의 '호')식 발음체계로 사전을 완전히 바꾸었다.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 · 박사를 수료한 뒤 독일로 유학을 간 전재성 박사는 1983년에 만난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Peter Neujahr)에게서 티베트의 대성자인 밀라래빠와 그의 <십만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티베트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승불교의 주요한 불교경전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이나 빨리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전 박사는 간간히 국내외 학인들이 티베트어 사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티베트어 음성체계나 사성체계가 워낙 복잡해 아무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이를 기다리다 못해 전 박사가 직접 티베트어 사전 편찬 작업에 뛰어 들었다.

전재성 박사는 2006년부터 빨리대장경 번역을 하면서 틈틈이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전 박사는 1956년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한 이후, 중국의 유따오추앤(于道泉)이 라싸 시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중심으로 편찬한 사전 <장한대조라싸구어 사전>과 독일의 미카엘 한(Michael Hahn)이 고전티베트어연구를 정리한 <고전티베트문어교본(Lehrbuch der Klassischen Tibetischen Schriftprache: 1981)>의 부록 사전에 나오는 2000여 어휘, 그리고 멜빈 골드스테인(Melvyn C. Goldstein)의 <현대 티베트어-영어사전>을 대조해 5000여 단 어휘를 취합한 3만7000여 어휘의 사전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 박사는 중국의 티베트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 이를 위해 중국어를 새로 공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한글프로그램에 티베트어 폰트가 호환되지 않아 번번히 실패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제작비용이 부족해 사전을 구입할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 책을 내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최근 인간의 영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다양한 티베트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전 박사는 "티베트 철자법에 대한 음성학적인 발음체계가 알려지지 않아 티베트 관련 서적들을 한글로 옮겨 적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싸(拉薩)의 '포탈라궁'의 경우 '뽀딸라'라고 표기하는 게 티베트 원음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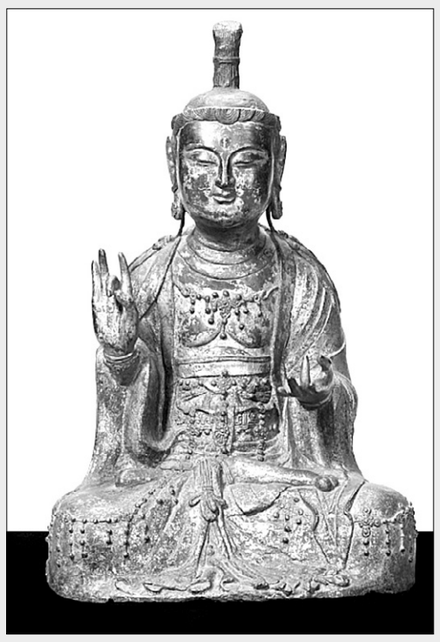
전재성 박사는 <디가니까야> 완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그는 "한문은 표음문자, 티베트어는 소리문자다. 소리문자는 번역하기가 더 쉽다. 한문으로 된 불경번역을 탈피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더욱 멀어지기 쉽다"며 티베트어 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고려 금동보살좌상 첫 공개

국립중앙博 12월까지 고려실에서 선보여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9년 신규 구입유물인 금동보살좌상과 고려왕실무덤 출토품 등 100여 점을 상설전시관 1층 고려실에서 전시한다.

금동보살좌상은 생각하고 있는 듯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국보급 유물로 고려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단아양식'(신고전적양식) 계열의 전형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불상의 표면에 칠해진 옻칠기법이 통일신라시대 이전 시작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전통칠기법이며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1370년 경(고려 공민왕대)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개인 소장 물품으로 구입 등 구체적인 경로는 밝히기 힘들지만 문화적 가치가 충분해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다"며 "문화재 지정도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강화 고려 왕실무덤에서 발굴된 청자와 화려한 장신구, 기와와 용머리, 수레굴대부속품 등도 선보여 대몽항쟁기의 고려왕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정토' 관념서 벗어나 실체로

한국정토학회 학술대회서 정토의 존재 논의

정토신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중진학자들이 참여해 정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정토학회(회장 도업)는 7월 8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과연 제불(諸佛)의 정토,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도업 스님은 "불자들 가운데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정토의 존재를 관념론적인 정토로 해석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이에 각 제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정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그 존재에 대한 의혹과 궁금점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술대회에는 도업 스님이 '제불의 정토'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가 '미륵의 정토 세계'를,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이 '화엄의 연화장 세계'를,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천문학에서 본 불교우주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업 스님은 기조발표에서 정토란 무엇인지, 정토의 정의(의미) · 명칭 및 종류와 정토에의 실천 행 등을 살폈다.

불교교학상에서 말하는 정토는 말 그대로 '깨끗한 국토' 또는 '청정한 불국토'라는 뜻이다. 대승불교 사상에서 보살이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세계가 정토다.

그런데 그 정토의 이름과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왜 그렇게 다양한 이름과 종류의 정토가 나타나게 됐을까?

스님은 "불타관의 전개상에서 보면, 불신설에 일신설, 이신설, 삼신설, 다신설 등이 나타났는데, 다신불 사상이 생겨나면서 불의 국토(정토)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서 정토의 이름과 종류 또한 다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승불교시대에 다불(多佛)사상이 주장되며 수많은 부처가 나타났지만 크게 역사상의 부처님과 진리의 부처인 비로자나 법신불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스님은 "부처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처럼 정토에도 타방정토, 십방정토, 유심정토 등 다양한 정토가 있다. 요약하면 마음 밖의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하는 타방정토와 오직 마음에 있다고 하는 유심정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타방정토는 신앙성을, 유심정토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어떻게 하면 대승보살의 이상세계인 불국토의 정토를 건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스님은 "정토는 대승보살의 원(願)과 행(行)에 의해 건립됐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겠다는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 행과 공덕 쌓음에 의해 불국정토는 건립된다"며 "이 땅을 정토로 만들 것인가 예토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굳은 서원과 실천행과 공덕을 쌓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법수사지 삼층석탑 보물 승격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6일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에 위치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656호로 승격, 지정 고시했다. 보물로 승격되면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유형문화재는 자동 해지된다.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높이는 5.8m로, 상 · 하 2층 기단에 3층 탑신부를 올린 양식이다.

석탑은 옥개석(지붕처럼 덮는 돌)의 층받침이 5단인 신라석탑의 전형으로 학계에서는 석탑 건립시기를 9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석탑의 규모가 작고 하층 기단이 높으며, 안상(위를 받치는 듯한 기단 장식)이 음각된 점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안동 옥동삼층석탑 등과 같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수사는 802년(신라 애장왕 3년) 창건됐으며 당시 금당사(金塘寺)로도 불렸다. 고려 때 중창해 현재 이름으로 고쳤으며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불에 탄 뒤 폐사됐다. 삼국유사에 '법수해인사'라는 문구가 나오며 성주읍지(星州邑誌)에는 구금당, 팔종각 등 1000 여 칸이 넘는 건물과 100여 암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삼층석탑 외에 당간지주와 석축만이 남아있다. **노덕현 기자**

석가여래부처님, 팔만사천성군님, 천백억화신천지신명,
세계승왕 인왕예하, 불교종단총연합회장 의륜대종사, 불교종정협의회장 월인대종사, 불교각종단종정큰스님, 대한민국이 증명한다.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 일시 : 오는 7월 30일(금) 음 6 · 19 오전 10시 입장 -기도 / 오전11시 - 법요식
• 장소 : 대구문화웨딩홀 대연회장 6층 (동대구역에서 5분거리 ☎ 053-756-1100)

주최 :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후원 : cbc108.tv연합불교방송

임원추대식 및 임명

총 재 청암 도한수 대종사 총남불교조계종종정
부총재 현광 김용익 대종사 대한불교달마선종종정
부총재 법각 지오 대종사 대승불교조계종원로원장
부총재 청원 박수웅 대종사 대한불교불광종종정
명예회장 안신풍 대종사 대한불교대원종종정
회 장 석연화 대종사 호국불교소림선종총무원장
부회장 심향 법장 대종사 한국불교구산선문회회장
부회장 만주 조성수 대종사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평화대사 위원회 회장 자성존 김범렬 교령 용화불교 ·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회장 만주 조성수 대종사 회장 각각 추대

취지문 | 전문 한국전통문화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문화와 예술, 언론, 사회, 교육, 경제 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전 세계 각국 인사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계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불교인 상호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연합 공동 행사를 주관하여 아름다운 인류복지사회를 건설하여 끝내는 정토세계에 도달하고저 한다.

초청의 말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총재단 · 회장단 추대식과 함께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봉행코져 하오니 동참하시여 우리 전통 문화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불교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 이 뜻을 응집하여 우리의 결의를 만천하에 알리고져 평화 동의 일환으로 계층과 종파를 초월하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계, 각계 인사께서는 동참하여 평화를 기원합시다.
• 일 시 : 오는 7월 30일 (금) 음 6 · 19. 오전 10시 기도 / 오전 11시 법요식
• 장 소 : 대구 문화웨딩홀 대연회장 6층 (동대구역에서 5분거리 ☎ 053-756-1100)
• 법요식 : 기도 10시 / 법요식 11시 / 만찬 1시 30분
• 추대식 : 임원 추대식 및 임명
• 시 상 : 평화대사 임명 평화기장 수여 부설단체장 임명 추대 100여명
• 문 의 : 011-356-3427 법왕자 김소부

평화운동 주인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통문화예술단체, 불교종단 및 신행단체 등 법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 지금 등록하십시오.
시도본부 사무소 개설 희망자
서울 구로 구로4동 732-2 ☎010-2500-0111 011-356-3427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중앙본부 사무총장 법왕자 김소부

총회위원장 만주 성수 대종사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봉행위원장 일웅 철우 대종사 한국불교전법조계종종정대행
대 회 장 법정 철회 대종사 대원불교조계종종정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직접 다가가서 도와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에 나가서 목욕이나, 가정방문 등을 하면 냄새도 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싫다는 느낌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듭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다니, 너무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내 생각만 하는 걸까' 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송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면 제가 그 상황을 직접 겪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다보면 마치 제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아 꺼려집니다.

또 나만 즐겁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마치 죄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러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생각,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 갈등이 있으시군요. 내담자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잘 아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쓰여 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정의감이 있는 내담자께서는 전공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조금 유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자는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 지혜를 갖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생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갈등을 이러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과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충족돼야 다른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자면서 봉사 나가면 싫은 느낌뿐이에요

마음 충족돼야 다른 이를 위해 에너지 쏟을 수 있어요

Q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가족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땅히 폭력을 행사했다고 근거가 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험에 너무 노출돼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질지 몰라 가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심하며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 저와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지 몰라 두렵습니다.

A 가족전체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군요. 현실적인 증거물도 없는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족들을 힘들게 해 견디기가 힘드실 겁니다. 내담자께서는 가해자 가족분을 깊은 병리로 보셨는데, 그러한 가족들의 시선이 어쩌면 그 분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분은 더욱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겠지요.

일단 내담자께서는 병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족과 다른 가족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를 하십시오. 정성껏 기도를 하다 보면 내담자께서도 마음이 편안해질것이고, 그 기운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임실불교 활성화 우리가 책임져요

희망법당 탐방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



이날은 교육과 예비군 훈련 준비 등으로 불자장병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 열기는 법당을 가득 메우고 넘친다.

간식에 끌려 참석하던 법회가 마음의 안식처 역할 톡톡

계급 떠난 솔직 대화로 군생활에 도움… 부대도 지원 팍팍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 4일, 울창한 숲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북 임실 제 6 탄약창 호국 장영사.

"김상병, 지난주에 감기로 고생하더니 몸은 어떤가?"

"덕분에 금방 나았습니다."

"박일병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더니 지금은 어떠신가?"

"어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 휴가 가서 뵙기로 했습니다."

매주 일요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삼삼오오 법당으로 모이는 병사들에게 이성강 포교사와 이래훈 포교사가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나눈다. 두 포교사는 웃는 얼굴로 병사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정을 듬뿍 담아 병사들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다.

호국 장영사는 탄약을 보관하고 다루는 부대에 위치해 특성상 부대 부지도 넓으며 민가와도 많이 떨어져 있다. 때문에 장병들과 지역불자들이 법당을 찾으려면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종교보다 월등히 많은 장병들이 법당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처럼 포교사들과 불자 지휘관들이 가족과 같이 상담하며 장병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하는 노력 때문일 것이다.

제6탄약창(창장 안승현 대령)에 법당이 들어선 것은 1986년의 일이다. 당시 부대 내에 있는 허술한 창고를 법당으로 개조해 일부 병사들이 법회를 봤다고 한다.

그러던 2004년 포교원장이었던 완주 송광사 도영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과 부대 지휘관, 재가불자들의 후원으로 위병소 옆에 50평 규모의 현 법당이 마련됐다.

12년간 제6 탄약창에서 매주 빠짐없이 법회를 진행하며 2004년 호국 장영사 건립 등을 지켜본 이성강 포교사는 "호국장영사 건립 이후 부대 내 포교뿐만 아니라 임실불교가 활성화 됐다"고 말했다.

호국 장영사 법당에 나오는 병사들은 계급의 상하관계보다는 모두가 형제나 삼촌같은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배들의 군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여자 친구 이야기, 가정사 등을 스스럼없이 털어놓는다. 불자 장병들은 모두 자연스레 군 생활에 충실해진다고 말한다. 이날도 장병들은 근무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랜만에 만난 법우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정신이 없었다.

김영관 상병(제2탄약중대)은 "처음에는 간식을 준다는 말에 법당에 나오게 됐다. 하지만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며 "특히 찬불가를 부를 때면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전역을 하루 앞둔 이제승 병장은 "군생활동안 불교는 큰 힘이 됐다"며 "복학하게 되면 대불련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고향 마산에서 매주 간식을 준비해 군 법당에 간다. 보살님들 뵐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이창환 대위(제2탄약중대장)는 "법당에서 장병들이 계급을 떠나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도 법당이 모범적인 군 생활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부대 내에서도 호국 장영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댄스대회, 장기자랑과 연등축제가 열렸으며 입상한 장병들에게 포상휴가 등이 내려졌다. 5월에는 불자장병들의 수계식을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 불자장병들이 완주 송광사에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도 제공됐다.

이날 일요정기법회에서도 교리퀴즈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천안함 사태로 장병들이 심리가 위축된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부대 차원의 배려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교리퀴즈대회는 25일 부대의 전 장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불자 장병들을 대상으로 본 무대를 앞두고 문제 수준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머물러 계실 때의 이름은?'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8가지 수행덕목은?'

교리퀴즈를 맞추는 병사에게는 미리 준비한 푸짐한 간식이 주어졌다.

호국 장영사에 나오는 불자 병사들의 교리 수준은 깜짝 놀랄 정도로 뛰어났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교리퀴즈대회에서는 김성엽 상병과 김진성 상병이 일반불자들을 물리치고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그 때 부상으로 받은 액자는 장영사 법당에 걸려있어 장병들의 귀감이 되고 있을 정도다.

이성강 포교사는 "타 종교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군 법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포교사는 "병사들 떡을 해주라며 공양미를 내어 주시는 스님들과 자장면을 보시해주시는 스님, 떡볶이 등 병사들 간식을 준비하는 완주 위봉사, 송광사 불자님들, 행사 때마다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퀴즈에 일희일비하며 환호하는 병사들의 뒤로 군포교 활성화의 서광이 비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7. 17(토) 오후 1시부터 ~ 7. 18(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5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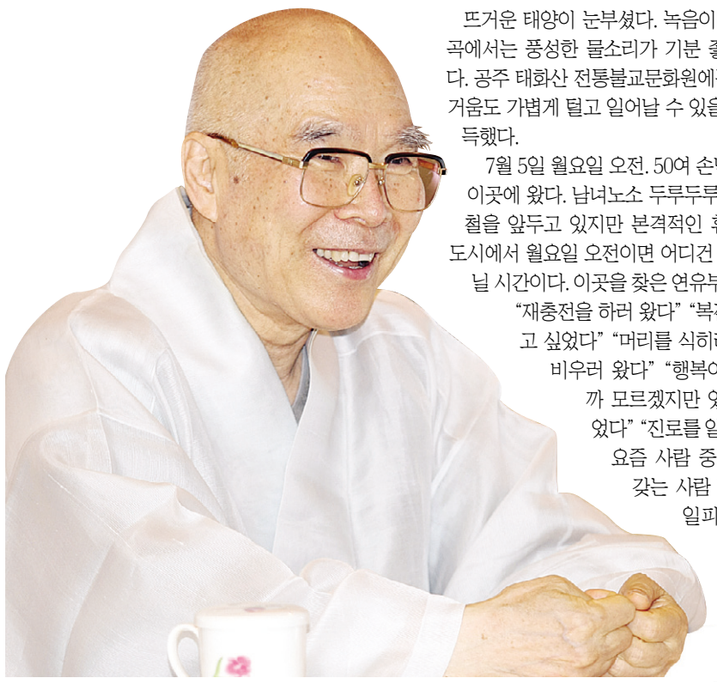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
구직자 템플스테이
내 안의 행복찾기

구직자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내 안의 행복찾기'를 주제로 7월 5~7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됐다. 다양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사진은 108배 하며 염주꿰기 체험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모습.

행복아 너 어디 있니?



"좋다 나쁘다 계산하지 말고 내 안의 보물창고에서 행복 찾으세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뜻대로 못하는데 내 일은 어떻게 뜻대로 하겠습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눈부셨다. 녹음이 우거진 산 속 계곡에서는 풍성한 물소리가 기분 좋게 흐르고 있었다.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는 7월 더위의 무거움도 가볍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듯 평온함이 가득했다.

7월 5일 월요일 오전. 50여 손님이 행복을 찾아 이곳에 왔다. 남녀노소 두루두루 섞여 있다. 휴가철을 앞두고 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도 아니고, 도시에서 월요일 오전이면 어디건 분주하게 뛰어다닐 시간이다. 이곳을 찾은 연유부터 묻고 싶었다.

"재충전을 하러 왔다" "복잡한 서울을 떠나고 싶었다" "머리를 식히러 왔다" "마음을 비우러 왔다"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있다면 만나고 싶었다" "진로를 알고 싶다"

요즘 사람 중에 이런 생각 안 갖는 사람 몇이나 될까? 차일피일 미루기 쉬운 희망사항일 뿐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간절함과 용기를 가지고 온 구직자들이었다. 재취업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사람, 정년퇴직 이후 새 길을 찾는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아름다운동행(사장 자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월 5~7일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행사는 얼굴 익히기부터 시작됐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활기찼다. 의욕도 넘쳤다. 통성명을 하고 자신의 처지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혔다. 공통된 고민이 있어서 인지 말도 잘 통했다.

'내 안의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등의 강의 및 대화의 시간, 화두참선, 발우공양, 관선무(觀禪武), 108배하며 염주꿰기 등 불교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스님들의 강의는 단연 인기였다. 불교를 오래 접해왔던 참가자나 막연한 동경과 호감만으로 알아왔던 참가자 모두 스님들의 쉽고 정감있는 법문에 흠뻑 매료됐다.

"나만 고민이 있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괴롭게 살다 죽습니다. 부처님도 운이 좋아 왕자로 태어났을 뿐이지 내면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우 스님은 불교 기본 교리를 통해 '행복의 조건, 행복해지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좋은 일 나쁜 일이라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얻는 행복이 아닌 내 안의 행복을 찾으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보라. 마음의 변화는 삶에 즐거움을 준다. 긍정적인 생각이 곧 내 생활이고 내 운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직업에 귀천은 없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더럽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라며 "직업적인 삶이 아닌, 삶에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절제를 통한 몸과 정신의 관리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부했다.

승가에서 영육일체(靈肉一體)를 이루는 고도의 수행법인 관선무 실습은 특별했다. 아주 간단한 동작처럼 보이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자신이 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하하" 하며 웃음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약간의 스트레칭에도 "아이구~ 팽겨라" "허리 아파서…"라며 동작을 따라 하다 보니 콩죽 같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마음대로 몸이 안 되지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뜻대로 못하는데 내 일은 어떻게 뜻대로 하겠습니까? 몸을 먼저 단련해야 마음도 바르게 되고, 일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밖에 없습니다."

법찬 스님은 실습 틈틈이 이렇게 심신의 건강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조했다.

불교문화체험은 깨달음의 장이었다. 절 1배에 염주알 한 알 끼우기를 108번, 나 혼자 다했다고 다음 알을 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했다. 발우공양 시간에는 먼저 왔다고 먼저 먹는 것도 아니고, 먼저 먹었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대중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했다. 항상 경쟁하며 살아왔고, 스스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빨라야 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나는 많이 먹어야 하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야만 했던 삶과는 너무나 대조됐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늦고, 조금 적게 먹는 체험이 갑갑하기도 하지만, 삶의 참 가치를 일깨우는 순간이었다.

필리핀에서 20여 년을 살다 온 공순호(37 · 남)씨는 대학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업난을 겪고 있었다. 공씨는 "모든 것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욕심과 실망, 좌절, 배신감 등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출판 편집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김서정(45 · 남)씨는 비정규직으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왔다. 김씨는 "재취업과 창업을 생각했지만 현실의 벽에서 숱하게 좌절했었다. 스님들의 말씀과 명상 강의가 생각을 변화시켰다"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방지희(29 · 여)씨는 서비스업계에서 4년간 일하다 직장을 관두고 원하는 일을 하고자 새로운 길을 택했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방씨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생각하던 방식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의 내 삶이 기대 된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관선무 체험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경쟁 아닌 함께하는 생활 배워 일상으로 돌아간 후 기대 가득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혼탁한 세상 백련의 향기에 빠지다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한방천연비누 체험 등… 8월 15일 까지

전국 최고의 백련 재배단지 하소 백련지에서 화려한 연꽃향연이 펼쳐진다.

'하소 백련축제'가 7월 3일 김제시 청하면 청운사 하소백련지에서 개막됐다. 축제는 13만 여㎡의 국내 최대 규모인 백련 서식지에서 개최된다. 연꽃과 고즈넉한 고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축제는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흰꽃이 세상을 구한다는 '백화제세(白花濟世)'를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 백련으로 만든 음식도 시식해 볼 수 있다.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해 '하소(蝦召)'라 이름 붙여진 청운사의 백련은 다른 백련과는 달리 순수하게 청백색만을 나타내고 있다. 독성이 없고, 다른 연에 비할 수 없는 향과 맛을 자랑하고 있어 각종 하소백련차, 하소백련된장 등의 특산품으로도 유명하다. 백련칼국수, 백련부침, 백련자반, 백련죽, 백련두부, 백련동동주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백련음식도 준비돼 있어 찾는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활력



하소백련축제가 김제 청운사 하소 백련지에서 7월 3일 개막됐다. 이날 개막 공연은 백날 서식지 내에서 진행됐다.

소를 주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주말마다 백련차회의 행다시연, 승무, 어산편패 등의 공연과 김석환 등 설치미술작가들의 백련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된다. 또 흙으로 자유로운 표정 만들어 구워보기, 한지 부채 전통문양 채색체험, 연잎 왕관 만들기, 한방천연비누 만들기 등의 부스도 마련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은 "물질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이 자연에게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백련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개막축사에서 "연꽃의 의미는 어지럽고 혼탁한 사바세계 속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 맑은 세상을 비춰준다" 며 "김제시를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온 세상을 향한 백련을 활짝 피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소백련축제는 개막공연으로 구원의 몸과 마음을 표현한 서승아 퍼포먼스와 전북예술단원의 대금, 가야금산조, 풍물놀이, 색소폰 연주가 공연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행보조기 전달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7월 6일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기 30대를 전달했다.

보행보조기 수급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다.

보행보조기를 받은 노차순 어르신(83세, 고창군 흥덕면)은 "지팡이를 짚으면 한쪽으로만 힘이 쏠려 힘들었는데 이젠 힘들이지 않고 밀면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도완 스님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도 비싼 보행보조기를 장만하지 못했다.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가 튼튼한 두 발이 되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행보조기는 KT&G복지재단에서 지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주 운전기사 불자회

"거리의 포교사란 자부심 가져요"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행사장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택시행렬이다. 대형 연등, 장엄등으로 단장을 한 택시 행렬의 뒤를 따라 연등행렬은 이어진다.

이 택시행렬 차량은 한국 운전기사 불자회 전주지역회(회장 이우칠, 이하 전주운불련) 회원들의 차량이다. 전주 운불련은 전주 시내 곳곳에서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등 전북지역의 주요도시의 연등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날을 위해 회원들은 행사 2~3달 전부터 차량을 장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기위해 고심한다. 이렇게 장엄한 차량은 시내 곳곳을 누비며 연등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운불련 회원들의 차량에는 자비함이 있다. 승객들이 자비함에 거스름돈을 넣도록 한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지구촌공생회 정기 후원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왼쪽부터 이우칠 회장, 이석우 부회장, 양성문 교무, 박기석 총무

전주운불련은 김제 금산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94년 창립했다. 전주운불련은 거리의 포교사로서 말없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날이면 차량 정비 등 안전운행을 위해 철저한 정비시간을 갖는 한편 시간을 쪼개 틈나는 대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전주운불련의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도시락 배달이다. 회원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 순번을 정해 하루 80여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도시락을 배달하며 이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 담당 사회복지사에 전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의 임무다.

전주운불련의 활동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바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현장에서다.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익산, 김제

위한 봉사활동 성금으로 사용한다.

회원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지역 어디든지 달려간다. 완주군 송광 정심원, 모악산 진달래집은 이들의 단골 봉사장소다. 또 도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비번인 회원들이 교통봉사를 하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다.

이우칠 회장은 "차량에 부처님을 모시고 운행하고 있는 회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양보운전과 준법운행이 생활화 돼 있다"고 말한다. 박기석 총무는 "차량에 부착된 만(卍)자 표식을 보고 승객이 타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리의 포교사라는 자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들의 발이 되어 전주 시내를 누비는 전주운불련 불자들 앞에서 새삼 존경심에 고개가 숙여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지도자 평화선언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이 7월 2일 광주 동구 궁동 원불교광주교당에서 "한반도 전쟁반대, 6.15선언지지 이행,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4대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기운에 반대한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실현을 위한 길은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며 6·15공동선언 이행,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실을 규명을 촉구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반도를 위기와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는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대원사 주지 현장 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 등 30여 종단 지도자가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주 노동자들 위한 법회 한마당

스리랑카 붓다라끼따 종정 초청 법회

전국의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불자들을 위한 법회 한마당이 펼쳐졌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이사 보혜)는 7월 4일 광주 무각사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종파 아스기리야 종의 종정 붓다라끼따 큰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초청법회에는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에서 300여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날 법회는 만남의 날이자,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붓다라끼타 스님은 법문에서 "한국에서 법문을 하게 돼 기쁘다. 불자들은 세계 어디에서건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위한 스리랑카 붓다라끼따 스님 초청법회가 7월 4일 광주 무각사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300여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회가 끝난 후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마련한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체육대회에서는 발야구, 줄다리기, 릴레이 달리기 등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춘계 학술대회

한국차문화학회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여연, 백련사 주지)는 7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차문화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연 스님,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등 300여 명의 다인들이 참석했다. 여연 스님은 인사말에서 "차 관련 대학이 탄생하고, 전국의 많은 차인 교실이 있지만, 불교계는 차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목포대 조기정 교수의 '한국 차문화의 진단과 처방' 기조강연과 동국대 박희준 교수, 대만 불광대학 요씨앙조우(游祥洲) 교수, 전남도립대학 이순옥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추한 자화상

참여불교리더스포럼

이상돈 교수 특강



4대강 공사중단 범국민대회가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2만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등 종교, 시민 단체들도 동참해 4대강 사업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아래). 이상돈 교수(오른쪽).



보수언론은 알면서 교수는 연구 지원 끊길까 침묵
21세기 내륙운하사업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아

종교계, 시민사회 등은 7월 한 달을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집중 기간으로 선포했다. 정부와의 갈등을 넘어선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들의 반대 의사에도 정부는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5조 4000억 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1%나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 조달비용 등 3조 8000억 원 포함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관련 예산은 9조 2000억 원에 이른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한 국민의 뜻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어, 4대강 사업으로 국론분열과 함께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참여불교리더스포럼은 7월 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초청해 '4대강에 나타난 2010 한국사회' 주제 포럼을 진행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업이 절차적으로 불법이라는 데에 강연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의 추한 모습을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1세기 내륙 운하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륙 운하라는 것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라인-도나우 운하가 개통됐을 때에도 바벨탑이란 비아냥을 샀다.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쪽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를 만들고 배가 산을 넘어가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으니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4대강 전면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에는 가혹한 비판을 가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추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나빠진다' 고 하던 교수가 4대강 추진본부장이 돼서는 '보를 건설해야 물이 맑아지고 홍수를 막는다' 고 하고 있다. 숲에 들어 갈 때에는 숲에 사는 요정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간다던 생태 전문가가 4대강 사업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이 교수는 보수 신문의 기자들, 경제학 전공 교수들, 수자원 전공학자 등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보수 언론에 대해 "대운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수 신문은 대운하의 허구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설을 쓰지 않았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의 '그린벨트 해제' 공약과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공약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신문들이 이렇게 침묵했다는 것은 정당화하기 힘들다. 뉴스 가치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고는 기사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들에 대해 "교수들은 연구비 지원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이 올해 안에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내년부터 못한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뒤집어 질 것이다. 전처럼 뜻대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길어봐야 올해 가을까지라고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줬듯이 앞으로 국민들은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대강 관련 부처 장관의 개각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청와대, 즉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나 정부의 기조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이상돈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5년 이래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 현재 중앙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4대강 국민소송에 앞장선 보수 담론가로 현재 4대강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환경정책법(1985, 아세아문화사),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1995, 대학출판사), 환경법(1999, 이진출판사 공저) 등이 있다.

이상돈 교수의 4대강 Q&A

-4대강 사업은 댐인가 보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는 높이가 10m다. 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이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보를 건설하는 위치는 대운하 계획에 나왔던 관문의 위치와 거의 같다. 왜 보가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설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하의 전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을 곧 4대강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업 국가일 때, 농업용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많이 쓰던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은 용도를 거의 다한 보를 철거해 하천의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는 추세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4대강 건설과 준설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

-정부는 4대강 공사가 36%이상 진행돼서 중단은 어렵다고 한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이 진행돼 회복 불가능해 보인다. 중단은 가능한가?

충분히 되돌이킬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중단해야한다. 보 공사가 이정도 밖에 안 돼 있을 때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자연 파괴를 막고 혈세를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재생은 불가능하지만 회복은 가능하다. 단지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다.

- 4대강은 왜 위법행위인가?

4대강 사업이 '2006~2020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을 완전히 유린하는 파괴적 행위라는 것은 자명하다. 마스터 플랜이 여론 수렴을 거친 것도 아니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다. 국토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하천법 제1조에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세계에서 참 자랑스러운 하천법인데 정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구상할 때부터 하천법, 행정절차법, 환경관련법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여론수렴과 토론을 정부가 하지 않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천법에서 규정된 계획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부실하게 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해 놓은 여론수렴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고 말았다. 사업 자체에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공사로 인해 환경적 악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부수적인 쟁점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1년 전에 했어야 할 토론을 이제야 4대강 관련 국민과의 토론에 나서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기본 골격을 정한 마스터플랜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총체적으로 불법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정부는 '마스터 플랜' 이 비(非)법정 계획이라고 하지만, 비법정 계획이라고 해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4대강 마스터 플랜' 은 우리나라 하천 정비와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입법절차에 준하는 예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가 이제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가?

또 정부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로 일부 신문에 4대강 관련 광고를 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객관자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객관자적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찬성과 반대 측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추진해야만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다. 정부가 광고까지 내는 것은 편파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 '법 절차 생략' 은 누구의 지시였나 ?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그리고 환경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나 하는 점이다. 이것은 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조사해야 하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현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차기 정권에서 밝혀내야 할 '4대강 게이트' 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문성이 제법 확보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치적 외압이 없으면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무리 없이 잘 진행한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 관료 사회와 산하 연구원을 뒤덮는 어떤 공포분위기가 느껴진다. "4대강 사업이 하천을 살리는 사업이며,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뻔 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절터는 잠기고 유물은 흩어졌어도 사자후는 쩌렁쩌렁

37 물에 잠긴 절터 땅에 남은 흔적 충주 정토사지

정토사지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 주소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마을 이름은 절골인데 하곡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라말 고려 초기에 이어 정토사가 폐사되기까지는 마을 전체가 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개천안(開天安)이라 하여, 하늘이 열려 편안한 곳으로 꼽혔던 곳이고 토정 이지함도 은거했던 곳이라 하니 산자수명(山紫水明)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절터는 충주댐으로 수몰됐지만 마을의 풍광은 수려합니다. 인근에 충주 리조트가 생겨 외지인의 발길이 분주해졌어도 언제나 평온하고 고즈넉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마철 무더위가 전국을 달구는 7월의 한 낮,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한 정토사지를 찾아 갑니다. 절터가 수몰되기 전 발굴조사를 하여 유물들을 수습해 절골 마을 솟대거리로 옮긴 것은 1983년부터 2년간입니다. 솟대거리에 당도하면 첫눈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온순하고 옛것을 숭상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솟대거리에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를 살다간 고승 법경대사(法鏡大師)의 자등탑비(慈燈塔碑, 보물 제17호)와 홍법국사실상탑(弘法國師實相塔, 국보 제102호)의 모형이 파란 잔디밭에 서 있습니다. 모두 정토사지의 유물들입니다. 솟대거리를 복원하여 만든 여러 개의 솟대와 독립유공자 이기진 선생 추모비, 효부와 이장의 송덕비 등이 도열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보호각 속의 자등탑비가 우뚝해 보이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어른 두 사람이 껴안아야 할만치 몸통이 굵은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에는 평상이 제격이어서 여염집 사랑방만한 평상이 놓여 있고 동네 어르신 다섯 분이 앉고 누워서 더위를 식히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충주호 쪽으로는 정토사지 발굴조사에서 수습한 석재유물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초석과 대문의 기둥 아래 놓았던 신방석(信防石)입니다. 도로와 연접하는 마을 쪽으로는 법경대사 자등탑비와 홍법국사 실상탑 모형이 서 있습니다. 헌걸찬 모습의 거북이 떠받치고 있는 자등탑비는 높이가 3.15m이고 폭은 1.42m입니다. 몸돌에는 온통 총알자국이 선명하여 60년 전 이 땅의 전쟁을 온 몸으로 겪은 상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문은 최언위가 짓고 글씨는 당대의 명필 구족달(仇足達)이 썼는데 이 두 사람은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오진탑비문'을 짓고 쓴 '콤비'이기도 합니다.

한 시절 대덕의 생애가 기록된 탑비가 변해가는 세월 속에 전란의 참상을 목격하고 그 상처를 몸에 새기고 서 있으니 가슴이 아립니다. 이 탑비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쟁 하던 탄금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아마 그 때의 핏빛 어린 하늘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법경대사자등탑비 옆의 느티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는 마을 어르신들.


법경대사자등탑비는 충주댐 수몰을 피해 절골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탑비는 그런대로 잘 보존 되었는데 부도는 못 찾은 건가요?"

어르신들의 대화가 끊어진 틈을 타 질문했습니다.

"아니지, 일제 때 왜놈들이 가져갔어."

"일본 어딘가에 있겠군요."

"있기만 하다면 다행이지만, 한 20년 전에 충주MBC에서 추적을 했는데 못 찾았지. 일정 때 왜놈들이 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할머니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일본에 가서 추적을 했는데 허탕 쳤어."

순례자의 질문에 시원시원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은 자등탑의 밀반출을 목격했던 이자원 할머니(10년 전에 별세)의 손자 이수욱(70)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홍법대사실상탑의 모형이 세워진 유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홍법대사실상탑과 탑비(보물 제359호) 역시 일본에 의해 1915년에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탑과 탑비를 제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내고 그랬지.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뭐, 그 일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모형이라도 세우게 된 거야."

"어차피 지금 이 자리도 원래의 자리는 아니겠군요. 정토사지는 수몰되었으니까요."

"물론 이 자리는 아니지. 하지만, 실상탑의 자리는 수몰되지 않았어. 저기 마을 위를 봐. 저기 집이 한 채 있고 그 뒤 풀밭이 있지? 거기가 실상탑이 서 있던 자리야."

그랬습니다. 정토사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거기 빈 절터에 있던 자등탑비와 석재들은 솟대거리로 올라 왔습니다. 그 이전 일제강점기에는 자등탑은 일본으로 도둑맞았고 실상탑과 탑비는 강제로 서울로 이사를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온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하천리 솟대거리가 온통 상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7월의 뙤약볕이 더 자글거립니다.

이수욱 어르신과 풀 더미를 헤치고 찾아간 실상탑이 서 있던 자리. 아래로 충주호의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고 멀리 산봉우리들이 연잎처럼 솟아 있습니다. 홍법국사의 부도탑이 놓였던 지대석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안으로 삼키며 칡넝쿨에 묻혀 있습니다. 주변에는 홈이 깊게 파인 석재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재들이 널려 있고 실상탑과 탑비가 있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도 풀 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모형 탑을 세울 때 이곳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처음엔 그러기로 했었지.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찌어찌 하여 저기 길 옆에 세우게 됐어. 그 때 충주시에서는 이곳 원래 위치로 다시 옮겨 준다고 했는데 그만 흐지부지 된 거야. 이 산이 우리집안 종중산인데 문중에서도 땅을 내놓기로 했었어. 물론 지금이라도 탑을 옮겨 온다면 땅을 내놓을 거고."

마을 사람들은 조상들의 유물을 모시는 일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관련 기관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상탑이 있던 자리에 서니 옛날 정토사의 사역이 매우 컸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탑이 있던 자리에서 왼쪽은 큰 절골 오른쪽은 작은 절골이라고 부릅니다. 몇 채의 펜션과 사과밭을 앞에 두고 있는 탑지에도 7월의 태양이 자글거립니다.

법경대사는 신라 제49대 헌강왕 5년(879)에 태어나 고려태조 24년(941)에 입적했습니다. 20세에 출가하여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당나라로 구법유학을 떠나(906) 도건(道乾) 대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924년에 귀국했습니다. 그가 귀국한 때는 고려가 개국하여 태조 왕건이 나라를 다스는 때였습니다. 태조는 대사의 귀국 소식을 듣고 반기며 특사를 보내 영접토록하고 국사로 모셨습니다. 당시 정황이 자등탑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경대사자등탑비 수몰피해 '이사' 총알자국도 선명

홍법국사실상탑 모형 원래위치 놔두고 길가에 세워

태조 임금이 특사를 보내어 교외에서 영접하게 하였으니, 융성한 총애의 영광이 당시로는 으뜸이었다. 다음날 구중(九重)으로 맞아들여 3등의 품계를 내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찬양하여 국사로서 우대하였다.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덮인 안개를 흩어주는 설법을 할 때에는 자주 불자(拂子)를 흔들었고 임금은 스님의 도풍을 흠망하여 희색이 만만(滿滿)하였다.<중략> 임금의 불심은 더욱 돈독해지고 스님을 자주 친견하려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여 가까운 곳인 중주(中州) 정토란야(淨土蘭若)에 주지토록 청하였다.(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1, 가산문화연구원)

법경대사가 정토사에 머물러 절을 중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임금의 깊은 신심과 존경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문에 나오는 '중주'와 홍법국사 실상탑비의 비문 초입에 나오는 '중원부(中原府)'는 지금의 충주로 이 지역이 국토의 중심임을 감안하면 지명이 이해됩니다. 많은 고승들이 그랬듯이 법경대사도 입적을 앞두고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비문의 말미를 읽습니다.

열반에 들기 전날 제자가 묻기를 "화상께서 세상을 떠나시려는 마당에 법등을 누구에게 부촉하시렵니까?"하니, 스님이 말씀하시길 "등등마다 스스로 동자(童子)가 있어 스스로 접화한다."고 하였다. 다시 묻되, "저 동자는 어떻게 펴 보이십니까?" 하니, 답하되 "별이 청천에 가득 포열되어 있으니,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하 하고 말씀이 끝나자 단정히 앉아 열반에 드시니, 속년은 63세요 법랍은 41이었다.

법대사의 뒤를 이어 정토사에 법등을 밝혔던 홍법국사는 정확한 생몰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고 비문에서조차 연대 부분이 마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출가하여 정진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유학했습니다. 지금의 절강성에서 복건성에 이르는 지역을 두루 여행하며 구법행에 정성을 바쳤습니다. 귀국하여 고려 성종과 목종의 귀의와 존경을 받았음을 비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홍법대사의 입적 장면을 읽습니다.

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무릇 있는 바 삼라만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이 모든 제상(諸相)이 상(相)이 아닌 줄로 터득 하여야 하니, 너희들은 구씨(龜氏)의 종지를 추락 시키지 말고 삼가 취봉(鷲峰)의 교(敎)를 수호하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부좌를 맺고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2, 가산문화연구원)

'구씨의 종지'란 가섭이 전한 선을 말하고 '취봉의 교'란 영취산에서 설하신 가르침 즉 교학을 뜻합니다. 이 교학의 으뜸은 영취산에서 설한 일승묘법의 <법화경>입니다. 법경대사와 홍법국사의 시대에 정토사는 웅장했을 겁니다. 여러 왕의 존경을 받았던 그들의 수행은 높고 높아 수많은 사람들이 향기로운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터마저 물에 잠겨 있고 대덕들의 유물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살았던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고, 후세를 살아갈 자손들에게는 더 없이 큰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쩌렁쩌렁 울리는 대덕들의 사자후를 들을 귀를 여는 일이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50여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학·역술의 모든것 완결판 셋트(5종) 출간

鬼神도哭할 神秘의冊

四柱運法

성도이름도나이도생일도 묻지 않고 알아낸다

본 冊 5종만 습득하면 누구나 四柱박사, 성명학박사, 인생철학박사가 될수 있다. 역학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교과서이다. 어느 다른 冊 어느누구에게 학습받을 필요없이 기초부터 응용, 감정, 판단까지 알기쉽게 엮었다.



잠간 지금도 돈주고 행운의 숫자를 받으십니까? 나만의 행운의 숫자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50년 경력 命理學·姓名學·地理學者/ 編著者 秀岩 李昌澔

전화 : 02-962-9944~5
FAX:02-967-9944
H.P : 011-292-9940

출판및판매처: (주)반도문화사
전화 : 02)723-1001(대) 팩스 : 02)720-2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3-1 진양B/D 2층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농협 : 301-0050-6260-11 우리은행 1002-729-773427 예금주 : 정석주

본사로 직접 구입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四柱運法 (사주운법)
- 세계최초로 성도 이름도 나이도 생일도 묻지 않고 알아낸다.
- 한날 한시에 태어난 四柱가 한쪽은 나랏님 한쪽은 거지
- 부귀, 권세, 실패, 빈곤, 강도, 살인자 ▶행운의 숫자가 운명을 좌우한다.
- 역대 대통령님들의 四柱八字評 ▶금년운, 내년운, 이달운, 오늘운 해평
- 나에게 맞는 옷색갈, 옥색갈이 맞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실패다.


정가 16,000원, 4×6배판 100 미색모조, 250면

最新 四柱博士 (사주박사)
- 四柱學의 모든 것을 기초부터 응용, 해설, 감정, 평가까지 30여권의 책중 핵심을 골라 요점을 기록하였다. 이 한권의 책만 습득하면 어느 누구나 100% 四柱博士가 될수 있다.
- 보기쉽고,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최선을 다하였다.


정가 38,000원, 4×6배판 80 미색모조, 540면

最新 周易姓名學 (주역성명학)
- 최초로 한문, 한글, 영어 발음을 응용 해설하였다.
- 五行편과 수리편으로 분리하여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에 한 운명의 뜻풀이로 엮었다.
- 성명학으로만 응용하여도 명사가 될수 있는 것이다.


정가 38,000원, 4×6배판 100 미색모조, 300면

작명하는데 필수적인 귀중한 책

最新 人生哲學 百科 (인생철학백과)
- 성공과 행복 소망을 이루는 길이 있다.
- 인생 전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 침대방향, 책상방향, 금고방향, 카운터방향등
- 이사방향, 집좌향, 주택 묘지운법


정가 52,000원, 4×6배판 코트지 600면 2도인쇄 양장제본

最新 원본그림 唐四柱 한글해석판
- 원본의 당사주를 핵심적으로 개선하여 어느 누구나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해설을 전면적으로 한글풀이로 엮었다.
- 초년, 중년, 말년운과 부모, 형제, 부부자식, 재물, 직업 수명운 등을 자상하게 해설하였다.


정가 52,000원, 국배판(가로 310×세로220) 260면 칼라(상),좌철 제본

당사주 책 내용중 일부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3>

무엇이 조주입니까?

학승이 물었다.
"방계(傍系)를 계승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구인가?"
"혜연(惠延) 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물은 것인가?"
학승이 대답했다.
"방계를 계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손으로 어루만져 줬다.

問 不紹傍來者如何 師云 誰
學云 惠延 師云 問什麽 學云 不紹傍來者 師以手 撫之

적자(嫡子)는 부처님 대를 이을 사람이다. 선문(禪門)에서 중생은 모두 부처의 적자이다. 즉, 중생은 모두 부처의 직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난다. 적자는 부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부처의 길을 가면 된다.

방계는 스스로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면서 온갖 수행을 한다. 혹은 3아승지겁 동안 수행해 복록을 쌓기도 하고, 혹은 몽중일여(夢中一如)를 얻기 위해 십여 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수행한다.

그런데 정통 선문은 이렇게 불철주야 수행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역설한다.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려는 것은 자기 머리를 두고 또 머리를 찾는 것과 같고, 자기 손바닥을 남의 손바닥에서 찾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문 안에서는 오로지 장부의 기개를 가지고 즉시 적자의 행로를 가는 것만 필요하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주 선사를 비롯해 역대 선사들은 그를 보고 "선재, 선재로구나."하면서 쓰다듬어 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가사 밑의 일(事)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問 如何是衲依下事
師云 莫自瞞

불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 조주 스님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라 말하고 있다. 불자들은 매일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부처의 적자가 돼 지금 자기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부귀와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맞는가? 옷만 바꿔 입고 정신은 출가자가 아닌 세인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야 한다.

하루 빨리 도를 깨달아 세인들을 지도하고 계몽해야할 사람이 감투를 얻기 위해 아부하고 돈을 뿌리는 세인들의 저속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구 6물로 만족하고, 항상 겸손하고, 소박한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온갖 호사스러움을 즐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청정한 척하는 것은 아닌지, 거듭 거듭 살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자기 자신만은 속이지 말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진여(眞如)나 범성(凡聖)은 다 잠꼬대와 같은 것 입니다. 무엇이 진실한 말(眞言)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참다운 경지에선 진여 · 범성 모두

꿈 속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헛된 말일 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시는 두 가지(兩箇)를 말하지 않는 거야."
학승이 물었다.
"두 가지는 놔두고 진실한 말은 무엇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옴 부리발."

問 眞如凡聖皆是夢言 如何時眞言
師云 更不道者兩箇
學云 兩箇且置 如何是眞言
師云 唵嘌嘛嘓發

진여는 참다운 정신세계이고 차별이 없는 저 언덕을 말한다. 범성(凡夫 · 聖人)은 아직 사량 분별이 남아있는 이 언덕이고 차별이 있는 현상계이다. 그러나 참다운 경지에서는 진여라고 말해도 틀리고 범성이라고 말해도 틀리다. 모두 꿈속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헛된 말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한 말인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옴 부리발' 하면서 사원에서 외우는 진언 비슷한 발음을 냈다. 사실 경서에 '옴 부리발' 이라는 진언은 없다. 조주 스님이 창안해 낸 발음이다. 조주 스님이 선적인 대답을 해준 것이다. 조주 스님의 이 진언은 선사들의 할이나, 격외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주 스님의 진언의 뜻은 무엇일까? 혹, 자연에서 나는 소리와 유사하지 않을까? '휘익-' 하는 바람 소리나, 새들이 지저귀는 '지지배배' 같은 발음들이나, 지하철 바퀴가 굴러가는 '철부덕 철부덕' 하는 소리 말이다. 그렇다. 이 소리들이야말로 온갖 사량 분별을 벗어나고 이쪽과 저쪽을 뛰어넘은 참된 소리가 아닐까.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동문 · 서문 · 남문 · 북문이야."

問如何是趙州
師云 東門西門南門北門

조주(趙州)는 중국의 고대의 한 지명이다. 조주 스님은 원래 종심(從諗)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이 80세가 넘어서 조주 관음원의 주지가 됐다. 이후 120세까지 40년간 조주에 살았기 때문에 지명이 법호가 됐다.

여기서 학승은 조주의 본질에 대해, 혹은 조주의 그릇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것은 학승이 큰 스님께 큰 스님 자신에 대한 평을 부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조주 스님도 그 의중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조주라는 지명에 있는 문이라고 빗대어 소개했다.

조주 자신은 조주의 땅으로 들어가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주? 조주의 본질은 비었다. 조주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저 언덕이다. 나는 평생 무엇을 주장하거나 가지고 있은 적이 없다.

다만 나는 조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 누구든지 조주로 들어가려면 4대문을 거쳐야 하듯이, 나 조주를 찾아온 사람은 조주의 말과 조주의 생각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주의 본색이 아닌 조주 땅을 밟기 전 초입에 있는 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렇다. 그 누구도 조주를 알 수는 없다. 조주에 가려면 4대문 초입에 있는 문을 지나가야 하듯 겉에서 조주의 안내(교화)를 받는 것이다. 진정한 조주는 보이지 않는다. 조주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선사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

■ 무불선원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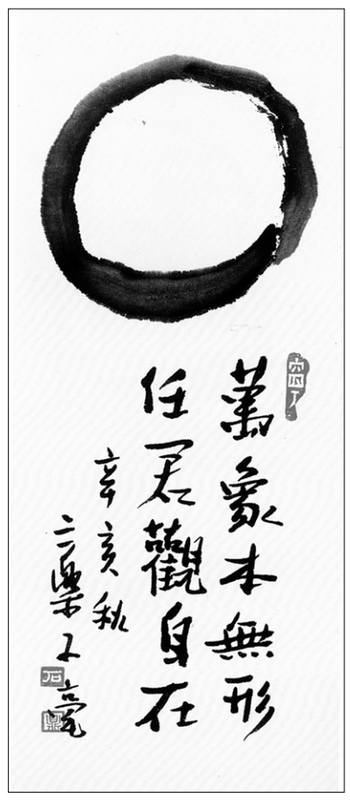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❺ 신심명(信心銘)

양변 벗어나 중도에 입각하라

〈兩邊〉 〈中道〉

보리달마의 정법안장을 계승한 태조혜가(太祖慧可)에게는 저술이 남아있지 않고 그 이름을 가탁한 저술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혜가의 법어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입사행론>의 법어 제57~63까지 여섯 가지 법어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범성(凡聖) · 고하(高下) 등의 분별심을 내지 말 것과 안심(安心) · 참회(懺悔) · 성불(成佛) · 지옥(地獄) · 망상(妄想) 등의 가르침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혜가의 법을 계승한 승찬에게는 유일하게 <신심명>이 전한다.

<신심명>은 중국 선종의 제3조 승찬 대사의 글이다. 승찬(僧璨, ?-606)은 당 현종이 경지선사(鏡智禪師)라는 시호를 선종의 6조 가운데 처음으로 추증했다. 재상 방관(房)이 지은 '삼조승찬비문(三祖僧璨碑文)'은 <보림전> 권8에 수록돼 있고, 독고급(獨孤及)이 지은 '서주산곡사각적탑수고경지선사탑명병서(舒州山谷寺覺寂塔隋故鏡智禪師塔銘幷序)' 비문은 <전당문> 권390에 수록돼 있다.



석정 스님의 선서화.

일찍이 승찬 대사는 대풍질(大風疾)에 걸렸었는데 혜가 대사를 찾아가 자기의 성명도 밝히지 않고 불쑥 물었다. "저는 풍질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그대의 죄를 가져오면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됐다. 이제 그대는 삼보에 의지해 안주해라." "지금 화상을 뵙고 승보는 알겠는데 불보와 법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가 다르지 않듯이 승보도 또한 그렇다.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렇듯이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에 혜가는 법기(法器)임을 알고 가상하게 여겨 출가시키고 말했다. "그대는 내 보배이다. 그러니 이제 찬(璨)이라는 글자를 써서 승찬(僧璨)이라 하라."

그해 3월 18일 복광사(福光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1년 만에 몸의 병이 치유됐다. 입적에 즈음해 법회를 하던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한 채 입망(立亡)했다. 매장을 했는데 이상(李常)이라는 사람이 신회 선사에게 물어서 산곡사(山谷寺)에 승찬 대사의 묘가 있음을 알고는, 가서 화장해 사리 300과를 수습했다. 풍병이 나은 후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았으므로 '대머리의 붉은 살' 이라는 뜻으로 적두찬(赤頭璨)이라 불렸다.

<신심명>은 4언 146구 584자로 구성돼 있다. 글의 대의는 양변(兩邊)을 벗어나 중도(中道)에 입각하라는 것으로 40대(對)로 구성된 장편의 운문시이다. 제목의 신심(信心)에서 신(信)은 심신(深信)이고 심(心)은 본심(本心)이다. 따라서 신(信)과 심(心)이 대등한 관계로서 신심일여(信心一如)의 입장이다. 때문에 '심신(深信)과 본심(本心) 다르지 않고 심신(深信)과 본심(本心) 둘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다. 또한 첫 구절의 지도(至道)는 대도(大道)로서 궁극의 도를 가리킨다.

그 본문은 <전등록> 권30에 수록돼 있고, <종경록>에 자주 인용됐다. 송대에는 염고(拈古)와 착어(著語) 등이 가해지고, 원 · 명 · 청대에는 각종 주석서가 등장했다. 돈황사본 페리오 4638 · 2104, 스타인 4037 · 569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심>의 내용에 대한 최초의 인용은 백장회해(74~814)의 어록과 청량징관(738~838)의 <화엄경연의초> 였다. 이어서 <전심법요>과 <임제록>과 <조주록>에도 많이 인용돼 후대에 공안으로 회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주목되지 못한 탓인지 다른 선적에 비해 그 인용 및 개판 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특히 첫머리에 해당하는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혐간택(唯嫌揀擇)의 구절은 조주간택(趙州揀擇)이라는 주제로 <굉지염고> 제96칙에 등장한다.

조주가 말했다. "오직 간택만 벗어난다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말을 할라치면 그것은 곧 간택이 돼버리고 명백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노승은 명백에 빠져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신심명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한 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이미 명백에 빠져 있지 않다면 신심명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승이 말했다.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째서 신심명의 정신을 잘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가 말했다. "그만큼 물었으면 됐다. 예배가 끝났거든 물러가거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을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게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봉 행

우란분절(백중)
지장경 산림법회 및
자비도량 참법기도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서 있을 **천도재 · 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법사 : 석 혜능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 - 오전 10시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를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 정 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

카이로프락틱(체형교정)
치유사 수강생 모집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법!
스님,불자님 이제 건강도 직접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교육내용
◆ 체형교정치유 - 목 등 허리 골반 디스크 / 척추 / 성장 / 비만
◆ 통증치유 - 급 만성 요통 / 어깨 무릎 통증 / 다리저림 / 오십견 / 두통 / 생리통 / 턱관절
◆ 재활치유 - 척추손상 / 관절손상 / 뇌졸중(중풍) / 뇌성마비 / 척수마비 / 루마티스 관절염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 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타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의학박사 엄갑호 원장
·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한국B.N 카이로프락틱협회 경영고문
· 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사범자격소유
·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 NLP인성 교정사(국제자격증)
· 최면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국가기관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

하늘 무너지고 땅 솟아나도 염불 쉬지 말아야

대둔산 태고사 주지 정안 스님



41년간 관음 · 지장정근으로 쉼없이 천일정진 이어와

동족상잔 원한 풀고 통일염원 담아 지장정근 시작

오전 내내 비가 내려 여기 저기 교통사고가 난 탓에 태고사 주지 정안(正安) 스님과의 약속시간이 1시간이나 늦었다. 서둘러 관음전 옆에 있는 거처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스님, 2년만에 뵙습니다. (도천) 큰스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큰스님은 100세의 고령이라 요즘은 직접 일은 안 하시지만 여전히 불사를 직접 감독하십니다."

'도천 큰스님의 분신'이라 불릴 정도로 정진에 열심인 정안 스님은 신도들로부터 "이 세상에 다시 없는 효자스님"이란 찬탄을 받는다. 스님은 1968년 입재 후 41년동안 관음 · 지장 기도정진을 멈추지 않은 놀라운 정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스님은 3년마다 천일 기도결제를 하고 해제하는 바로 당일, 결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고사는 사시사철 기도정진이 끊어지지 않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스님의 사분정근은 새벽 4~6시, 오전 9시반~12시반, 오후 2~4시, 저녁 6시반~8시반 등 하루 8시간 진행된다.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 지장보살 정근, 축원 등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사시사철 이어진다.

"태고사의 수행 가풍(家風)은 어떤 것입니까?"

"큰스님은 평생 천수다라니로 수행한 수월(경허 선사의 수제자) 큰스님의 가풍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보살도와 일, 참선과 계행이 오롯이 하나인 수행입니다."

무려 41년 동안 한 도량에서 관음정근과 지장정근을 통해 염불수행에 몰두해 온 정안 스님의 구도과정, 특히 출가동기가 궁금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이듬해 전주공고 화학과를 졸업한 나는 대학입시에 떨어져 장수 고향집에서 3년 동안 놀면서 인생의 허무를 느꼈습니다. 다시 팔공산에 들어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와중에 더욱 무상(無常)을 느껴, '출가를 해서 나도 한번 대도(大道)를 이뤄 중생제도에 나서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정안 스님은 24세에 임실 죽림사로 출가하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웠다. 10년 동안 어산(범패)을 익히고, 강원에서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배운 후 참선으로 깨치겠다고 당찬 포부도 세웠다.

"칠순이 넘은 계운 스님으로부터 3년간 어산을 죽자 사자 배웠지요. 새벽마다 도량석과 종성, 예불을 모신 후 절을 하며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위대하고 위대하고 위대하신 선지식을 친견하게 해달라'고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발원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발원 덕분인지, 정안 스님은 담양 보광사 주지 도광 큰스님을 통해 새로운 구도의 길을 걷게 된다. 1968년 8~10월 석달 간, 정안 스님은 동철 스님의 소개로 담양 보광사에서 다시 행자생활을 했다. 도광 큰스님은 다른 행자 두 명과 함께 매일 법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감명 깊게 가슴에 배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광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시 죽림사로 돌아가 범패를 마저 배우고 싶다고 큰스님께 말씀을 드리니, 스님은 마침 금산 태고사에 갈 일이 있다며 같이 나가자고 하셨다. 이 길이 바로 태고사 조실 도천 큰스님과의 숙명적인 인연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이다.

1968년 10월 말, 도광 큰스님을 따라 도착한 태고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한 호남 제일의 도량이었음에도, 당시만 해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양철로 지은 법당에 부처님만 모셔놓은 정도였다. 오후 2시가 넘어 대혜성 노보살님이 청국장으로 밥을 차려주었는데, 평생 제일 맛있는 공양이었다. 공양을 마친 후 태고사에서 온몸으로 불사중이던 도천 큰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몇 달 전, 담양 보광사에서 큰스님을 처음 뵐 때를 스님은 회상했다.

'이 스님이야말로 진짜 진짜 진짜 스님이시로구나. 이 분이야말로 옛날 옛날 옛날 스님이시로구나.'

태고사에서 다시 정안 스님을 만난 도천 큰스님은 이렇게 질문했다.

"너, 거기(보광사) 있지 뭣하러 왔느냐?"

"스님, 저 여기 있으러 안 왔어요."

태고사는 산세가 험하고 일도 많아서 잠시라도 머물러 있는 스님이 없었다.

이틀날 도광 큰스님이 태고사를 떠나는데, 정안 스님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태고사에 남게 되었는데, 도천 큰스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는지 "이런 데서 기도하면 소원이 다 이뤄질테니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고 격려했다.

"처음엔 '며칠만 정진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노보살님께서 '100일간 기한을 정해 정진을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 본가에 한번 다녀온 후, 음력 10월 보름, 100일간의 관음정진에 들어갔습니다. 100일기도를 마치니,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는 스님이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도천 큰스님께서도 '이번에는 3년간 천일기도를 해보거라. 천일기도를 하면 업도 녹아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신심이 깊어지고 성불도 가능하니, 기도를 잘 해봐라'며 당부하셨습니다."

정안 스님은 며칠간 갈등을 하다가, 성지인 태고사의 중창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장수 본가에 다녀온 후 이듬해인 69년 4월 보름 사미계를 받고 와서, 5월부터 3년간의 천일기도에 들어갔다. 낮에는 일을 하고 아침 · 저녁으로 기도정진을 했는데, 낮에는 현산 스님(現 화엄사 선원장)이 대신 기도를 해주었다.

세 번째 천일정진을 마친 9년만에 삼불전이 완공되었고, 이후 3년마다 천일정진이 회향되면서 전각이 하나씩 건립됐다. 결국, 극락보전 산신각 관음전 지장전 백팔계단 종각 선방 등이 천일정진을 시작한 지 40여년만에 모두 지어졌다. 정성껏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3년마다 천일이란 기한을 정해 기도정진을 하는 것은 불사 성취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었다. 천일정진을 시작할 때는 12년간 관음정근을 했는데, 이후에는 지장정근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6.25 동란을 겪으면서 남북이 서로 죽이는 큰 원결을 맺었어요. 몇 백만 명이 서로 죽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이 일어났으니, 그 원한을 풀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지장정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정안 스님이 도천 큰스님께 지장정근기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송광사의 구산 방장스님을 뵙고 오너라" 하셨다. 구산 스님은 법련화 보살님이 시주한 서울 법련사에 매달 올라와 법문을 하셨는데, 정안 스님은 법회 전날 구산 스님을 뵙고 질문을 드렸다.

"지장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아주 장한 원을 세우셨네. 지장보살님은 일체중생을 깨우쳐주고 조상 영가를 극락왕생 시키는 원력을 세웠으니, 힘껏 정진해 보시게나."

구산 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1080독을 세 번 한 이후에 견처를 얻었다는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방장스님의 격려로 자신감을 얻은 정안 스님은 다섯 번째 천일정진을 지장정근으로 입재하면서 서울 불광사의 광덕 큰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했다. 이날 광덕 큰스님은 지장예찬 법문을 설했는데, 그렇게 신

정안 스님은 ...
1943년 전북 장수 출생, 1966년 임실 죽림사에서 출가했다. 1969년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부터 현재까지 쉼없이 천일 관음 · 지장 기도정근을 이어오며 염불수행을 하고 있다. 현재 금산 태고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숭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굿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지장보살’ 화두와 다름 없어



심이 날 수 없었다.

1999년 2월 지장재일, 정안 스님은 1969년 관음 · 지장정근을 시작한 이래 1만일정진을 회향했다. 그러나 정안 스님은 회향일 곧바로 쉬지 않고 그날로 다시 지장기도를 시작했다. 41년 가운데 30년간 지장정근을 하며 스님은 내세에도 지장보살의 원을 실천하겠다는 발원을 했다. <금강경>을 만들어서 광덕 스님께 점검 받으러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정안 스님은 광덕 스님에게 당신의 원력을 숨김 없이 밝혔다.

“지장정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해 지장보살의 원력과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을 세세생생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광덕 스님이 정안 스님의 어깨를 잡아 힘차게 흔들며 당부했다.

“꼭 너는 보현행원을 하거라! 보현행원이다!”

이렇게 광덕 스님이 힘과 용기를 주자, 그때부터 정안 스님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할 때 마다 저절로 보현행원과 관련한 법문이 쏟아져 나왔다. 오랜 관음 · 지장 염불로 득력(得力)한 정안 스님은 어느 경전을 보거나 고승의 법문 테이프를 들어도 그대로 이해가 되었다. 게다가 ‘바를 정(正)’자, ‘편안한 안(安)’자란 법명 그대로 안심(安心)을 얻었기에 탐욕과 애욕, 성냄, 어리석음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한다.

2011년 음력 2월 지장재일이면 정안 스님이 염불정진을 한 지 42년 째 되는 해다. 같은 도량에서 해제 없이 결제를 계속해 온 수행자는 거의 없다. 특별하고도 간절한 원(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일 8시간 꼬박 선채로 쉼없이 이어온 사분정근을 하면서 어찌 번뇌가 없었겠는가.

“처음엔 번뇌가 말도 못했지요. 중간에 너무 애를 쓰다가 상기(上氣)가 들어 혈압이 높아져서 3년 정도는 힘들 때마다 앉아서 염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꼭 해나간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세월이 장구하다는 생각은 안들었습니다. 지금도 처음 입재할 때랑 마음가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세월동안 한결같이 간절한 염불정진을 한다는 것이 약삭 빠른 현대인들에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몇 년은 고사하고 몇 달, 며칠 정진을 해보고 안되면 금새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이러한 말법(末法)시대에 정안 스님의 용맹정진은 더욱 귀한 수행의 전범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보면 희유(稀有)한 일이기에 일반인이 보기에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지 모른다.

1986년 7월 백중기도 회향 때는 간장독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대둔산 의상대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방광현상이 나타났다. 99년 2월 지장재일, 1만일 기도회향 때는 불꽃 가운데서 한 쌍의 화룡(火龍)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정안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신도들이 갖가지 가피를 입은 일이나 영험담이 무수하지만 이는 ‘신심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적이 일어났다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미신으로 몰아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다.

정안 스님의 수행담을 들으면서 수행자의 의지와 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더욱 큰 귀감이 된다. 그러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안 스님과 같은 정진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편을 통해 부족함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할수 있을까.

“신도님들은 아침 · 저녁에 <천수경> 7편을 하고 <금강경>을 1독 한 후 지장정근을 하신 후 즘부다라니를 하시면 좋습니다.”

정안 스님에 따르면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안으로 지은 업을 정화한다면, <지장경>에 나오는 즘부다라니는 밖으로 지은 업을 녹인다고 한다. 모성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의 다라니와 부성을 상징하는 지장보살의 다라니가 안팎으로 업을 녹이고 지혜와 공덕을 함께 닦게 한다. 그리고 해탈경인 <금강경>은 최종적으로 공도리를 깨닫게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화두삼아 간절히 염불해 보세요. 매순간이 한결같이 이어지면 동정일여가 이어지고 이것이 더욱 깊어져 쭈욱 이어지면 오매일여, 숙면일여가 됩니다. 염불정근도 일심으로 하게 되면 참선의 화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화두이든 염불이든 일념(一念)이 상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장보살’ 염불을 통해 삼매에 들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지장정근을 통해 일념상응이 되면 염불하는 자가 지장보살이 됩니까?”

“‘내가 지장보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상(相)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직 ‘지장보살’ 한 생각만 찾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들은 염불로 일념이 되면 ‘염불하는 놈이 무엇인가?’ 하고 화두를 챙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불하는 놈이 무엇인가?’ 하고 찾으면, 염불하는 놈과 찾는 놈이 두 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지장보살’ 한 생각만 쫓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지장보살’ 하나로 똘똘 뭉치면 화두 드는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안 스님은 이러한 일념삼매에 들어 체 · 상 · 용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완전한 깨침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체(體)는 입만 열어도 어긋나고 마는 진리의 본체입니다. 상(相)은 일체 현상계가 나의 몸이어서, 이 세상 그대로가 실상(實相)인 세계입니다. 용(用)은 일체와 하나인 자리에서 생각을 내고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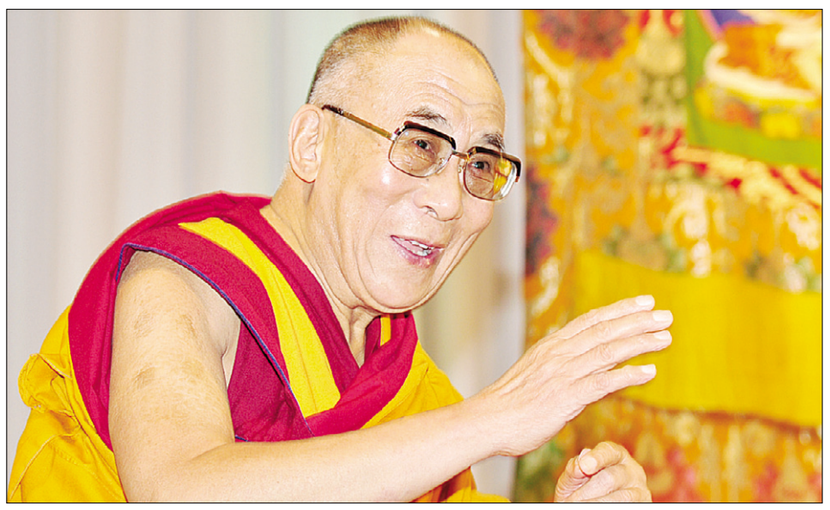
정안 스님의 법문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진실함이 배어있다. 평생 남의 돈만 세다가 퇴직하는 은행원처럼, 한평생 남의 살림살이만 저울질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수행자가 허다하다. ‘부처님 아들’이란 뜻의 ‘불자(佛子)’ 타이틀을 가진 이라면 지금 당장 염불이나 주력, 화두를 챙기면서 내 살림살이 한번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하산하는 길에 한없이 자비롭고 순박한 정안 스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을 흥겹게 불러본다.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하~.’

글 · 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달라이 라마 ‘행복’을 말하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라마(텐진 갸초)가 일본 여행 마지막 일정을 요코하마에서 가졌다. 6월 20일 나가노를 시작으로 22일 카나자와를 거쳐 26일 해양도시 요코하마 피시피코전시홀(PICIFICO Exhibition Hall)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만여 명의 청중이 운집했다. 한국인 불자 600여 명도 동참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날 법문을 통해 “보리심을 일으켜 자비행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법문 요지>



“보리심 일으켜 자비행 하세요”

붓다의 말씀 속에서 자비 선정 진리에 대한 무수히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기의 진리로 관통합니다. 윤회하는 수많은 중생이 사는 세간의 중생은 사실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입보리행론>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행복을 일으키는 원인을 논합니다. 중생은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스러우며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 행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윤회하는 모든 중생은 모두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통이 생기는 그 원인을 명확히 알고 그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연기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지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청정한 지혜를 가진 이는 붓다께서 보신 연기의 진리를 통해 모든 무지를 밝힙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의 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모든 사물은 인연을 근거로 생하기 때문입니다. 인과 연을 통해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력으로 성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연을 의지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빈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을 원하지만 자신의 근본 원인을 알 때 모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도 거친 연기와 미세한 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집제입니다. 멸제는 결과이고 그 원인은 도입니다. 사성제는 윤회의 방법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인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의 진리를 설한 이후에도 고통의 본성을 파헤쳐 종국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명쾌히 밝힙니다.

거친 연기는 사성제에서 설한 인과연기이며 반야경에서 미세한 연기를 설합니다. 붓다께서 사제에 대해 설하실 때 거친 연기를 설하시면서 인과의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야경에서는 미세한 연기를 설하시면서 존재의 자성을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의 연기를 신중히 생각하세요. 고통의 원인이 생하면 타인의 불행을 만듭니다. 그 때 생기는 자성이 나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역으로 행복 또한 가능합니다. 보리심을 일으켜 자비행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연기의 이치로서 가능합니다. 인연의 이치에서 핵심이 보리심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오온의 자성이 없음을 밝히는 바와 같이 자립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중생의 집착심과 분노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실체에 집착하는 것에 비롯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 일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감소와 내적인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가 내적 평화와 직접적으로 완벽히 해결치 못함을 알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21세기는 10년 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90여년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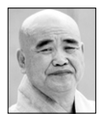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⑧

행동의 바름이 바로 도다

〈道〉



그림 · 김필헌

◆석공덕정토(釋功德淨土)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했다. "대사께서 법을 설하심은 참으로 부사의 하십니다. 제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대사께 여쭙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대사께서는 대자대비로 제자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 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 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 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양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 대사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공덕이 없나니, 사군은 달마 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지니, 양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해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니,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아야 하며,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 밭에 있지 않느니라. 자기의 법성(法性)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見性)이 곧 공(功)이요, 평등하고 곧음이 곧 덕(德)이니라. 안으로 불성(佛性)을 보고 밖으로는 공경할지니, 만약 사람들을 경멸하고 아상(我相)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해 법신에 공덕이 없느니라."

위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자가 보오니 스님과 도사들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하온데 대사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에 날 수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의심을 풀어 주소서."

"사군은 들을지니, 혜능이 말하여 주리라. 세존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서방정토로 인도해 교화하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 고 했나니, 다만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 멀다 하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이니라. 사람에는 자연히 두 가지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나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라서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곳에 나려고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마음에 깨끗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방정토(西方淨土)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해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려우니라. 십악(十惡)을 제거하면 바로 십만 리를 가고 팔사(八邪)가 없으면 바로 팔천 리를 지난 것이니, 다만 곧은 마음을 해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으니라."

육조 대사께서 말했다. "대중이여, 대중은 정신 차리고 들을지니, 세상 사람들의 자기 색신은 성(城)이요, 눈 · 귀 · 코 · 혀 · 몸은 바로 성의 문이니, 밖으로 다섯 문이 있고 안으로 뜻(意)의 문이 있나니, 마음은 바로 땅이요 성품은 바로 왕(王)이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떠나면 왕은 없느니라. 성품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부처는 자기 성품(自性)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지니,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선지식들이여, 혜능이 도속(道俗)을 위해 '상(相)을 여읜 무상송(無相頌)' 을 지어 즐터이니 다들 외워 가질지니, 이것을 의지해 수행하면 항상 혜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여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돈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간의 삿된 가르침을 부수는 도다. 가르침에는 돈(頓)과 점(漸)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달음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돈교(頓敎)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설명하자면 비록 일만(一萬) 가지이나 모두 합하면 도로 하나로 돌아가나니 번뇌의 어둠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바름이 오면 번뇌는 없어지나니 삿됨과 바름 모두 여의면 오직 깨끗함만 남을 뿐이로다.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망상이라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오로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 도다.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으려 하면 일체 모두가 방해롭지 않나니 항상 자기 허물 드러내 있게 하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본디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道)를 찾는데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도리어 스스로 고뇌만 하는도다.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한다면 행동의 바름이 바로 도(道)이니 스스로에게 바른 마음 없으면 어둠 속 길이라 도를 보지 못하리라.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잘못 보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니 도리어 허물이로다. 남의 잘못은 나의 허물이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지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 버리고 번뇌를 물리쳐 부수는도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글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할지니 바로 보리가 냐타남이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으며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 일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出世間)의 법을 구하지 말라.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남이니 삿됨과 바름을 다 물리쳐 버리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로다. 이는 오직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승이라 이름 하나니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경과하나 깨달으면 찰나의 사이로다.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석공덕정토(釋功德淨土)는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덕부분인데 유주상(有住相) 보시는 복덕은 될지언정 무주상(無住相) 보시처럼 공덕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혜능 선사는 '자기의 법성(法性)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見性)이 곧 공(功)이요, 평등하고 곧음이 곧 덕(德)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토극락부분인데 몸으로 십악(十惡)을 짓지 않고 마음으로 팔사(八邪)를 벗어 버리면 서있는 그 자리가 곧 정토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혜능 선사는 '만양 생사(生死)를 여읜 돈법(頓法)을 깨달으면 서방 극락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요, 돈교의 큰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염불을 해도 왕생할 길이 멀어질 것이니 어느 세월에 정토왕생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생 극락인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요,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닌 하나이듯, 사바예토가 마음만 열리면 극락정토 아님이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혜능 선사께서 무상송을 길게 들려주시는데 '진리 그 자체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돈교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나니,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인 이치' 라며 '삿됨과 바름을 다 물리쳐버리면 보리(깨달음)의 성품이 스스로 드러날 것' 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혜능 스님은 어떤 것이 바른 공덕이며 어떤 것이 서방 극락세계의 바른 인식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악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열 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째가 산목숨을 죽이는 것이요, 둘째가 도둑질이며, 셋째가 삿된 음욕이요, 넷째가 망령된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속이는 말이요, 여섯 번째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가 나쁜 말이요, 여덟 번째가 탐내는 것이며, 아홉 번째가 성질부리는 것이요, 열 번째가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팔사란 여덟 가지 바르지 못한 견해를 말합니다. 첫째가 태어남에 대한 분별이요, 둘째가 죽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가 끊어짐에 대한 분별이요, 넷째가 항상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섯 번째가 같음에 대한 분별이요, 여섯 번째가 다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일곱 번째가 떠남에 대한 분별이요, 여덟 번째가 만남에 대한 집착입니다.

팔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도의 '나가르주나(용수)' 가 지은 〈중론〉에서 부터입니다. 〈중론(中論)〉의 첫 시작에서 판사를 '팔불게' 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켜 중도(中道)에 대한 바른 견해를 돕고 있습니다. 나가르주나의 팔불게(八不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出

몸과 마음으로 십악과 팔사를 여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서방의 극락세계요,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자신이 곧 아미타불임을 거듭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강조했지만 불교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종교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불제자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함부〉 경전에서 사르나트의 첫 설법 시 교진여 등의 오비구가 깨달음을 이뤘을 때에도 나 외에 다섯 부처라는 표현은 만날 수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다섯 부처라는 평등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경전과 율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은 당시 매월 보름날 밤에 치러졌던 자자법회(自恣法會)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중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 대중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벼운 언동은 없었는지 진지하고 겸손하게 대중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열반경〉과 〈아함경〉에는 부처님이 구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실 때 아란에게 병들고 쇠약해진 자신을 위해 길상초를 깔아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부처가 아난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을 유추해 볼 때, 몸이 쇠약해지기 전까지는 직접 자신이 길상초를 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보아, 부처는 누군가에 자신의 수발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기경전인 〈아함부〉와 율장에서는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평등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한 쪽은 우월하고 어느 한 쪽은 열등할 수 없는 것이 불교만의 자랑이자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문경전을 한글로 옮기는데 있어 이 평등관계는 여러 곳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와 조사는 지존이었으며, 제자와 중생인 우리는 높인 말로 아랫것을 인증해 왔던 것입니다. 중국어에는 구조적으로 높임말과 하댓말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번역자들은 한결 같이 부처와 조사는 하댓말을, 제자와 중생들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열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깊게 관조해 초기불교 정신을 되살리는데 부끄러움과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요절복통 여래네 집

#18. 수다쟁이 우리엄마



스튜디오 돌













이주일의 화두

깊은 못이 고요하고 맑은 것처럼 어진이는 진리를 듣고 마음이 깨끗해진다.

법구경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중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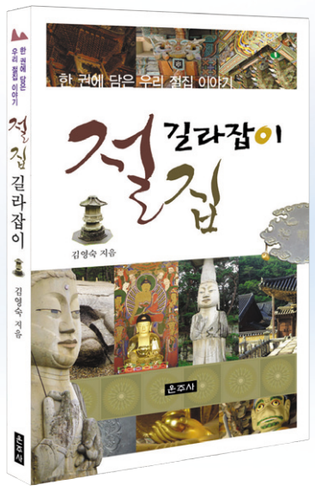
한 권에 담은 우리 절집 이야기!

절집 길라잡이

일주문부터 산신각까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불상, 그림, 조각 등에 대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명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절집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그런 모양으로, 왜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준다.

김영숙 저 | 신국판 변형 | 컬러 | 224쪽 |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5달러 이야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동안, 어릴 적 추억이 스며있는 이야기는 먼지에 뒤집어 쓴 채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출간된 지는 조금 지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같이 보내는 데 제격일 것 같아 소개한다.

<5달러 이야기>, 중국 베이징대 동문 사이인 장젠펑과 후쭈칭이 엮었다. 동서양의 지혜와 유머, 인생교훈을 담고 있는, 부제(副題)처럼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씨앗 같은 33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엮은이 장젠펑은 칼럼니스트이자 출판인, 후쭈칭 역시 중국과 홍콩에서 도서상을 수상할 정도로 출판활동이 왕성하다.

휴가지서 만나는 일상의 깨달음

먼저,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푸슈킨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푸슈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시인이다. 푸슈킨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귀족 자제가 히죽거리며 말했다. "친애하는 푸슈킨 선생, 보아 하니 돈주머니가 가득 찼나 봅니다." 푸슈킨은 간단하면서도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 "자네는 때마다 집에서 돈을 줘야 생활할 수 있지만 나는 평생 끊이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네." 의외의 대답에 어리둥절하던 귀족 자제가 또 다시 물었다. "어디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바로 러시아의 문자 33개에서 온다네."

중국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는 무엇이든 잘하는 노인이라는 뜻인 <십전노인(十全老人)>으로 불렸다. 그가 평생 쓴 시는 10만 수가 넘는다고 한다. 건륭제와 문신 기효람(紀曉嵐)이 백룡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 건륭제는 범종을 친 뒤 소리가 멈추기 전에 시를 한 수 지었다. "백룡사에서 금종을 치니…." 그러자 기효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건륭제가 정색을 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기효람은 "송구합니다, 폐하. 갑자기 '황학루에서 옥피리를 부니…'라는 이백(李白)의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는 이 세상의 어느 시와도 비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마침 폐하의 시구가 이백의 그 구절과 대구가 되지 않습니까?"

건륭제의 시가 이백의 시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절대권력인 황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품평을 하고, 자신의 총명함을 증명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5달러 이야기>는 복잡한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읽고 나서 행복해지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름날 기차 속에서, 여행지를 오가는 버스 속에서, 가족단위의 승합차 여행길에서 펴보면 가볍게 읽히고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5달러 이야기 /장젠펑-후쭈칭 엮음 /문지영 옮김 /에버리치홀딩스 /9,500원

진정화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의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을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불교에는 저렇게 작고 간편한 책이 없을까?'

물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얇은 형태의 경전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전이 일반불자들에겐 유용할지라도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불교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간편하게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쏙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은 없을까?

<내 영혼의 작은 책>시리즈는 이러한 독자들의 욕구에 맞춰졌다.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망라한 <내 영혼의 작은 책>시리즈는 200페이지 내외의 11㎝×16㎝사이즈로 주머니, 핸드백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불교를 익힐 수 있게 했다.

이 시리즈는 불교 교리와 수행, 문화, 신행과 의례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시리즈는 크게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분야로 나눠지며, 다시 각 분야별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구성돼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훈고학적인 주석이 아닌 창의적인 사유로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했다.

'교리 · 입문' 분야에는 사성제 · 팔정도, 육바라밀, 업과 윤회, 무아, 하심, 중도, 유식 등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들을 다뤘다.

'수행 · 명상' 분야에서는 생활명상, 위빠사나, 절, 염불, 주력, 참선 수행, 염불선 등을 다뤘으며 '신행 · 문화' 분야에서는 아미타불, 약사여래와 약사신앙, 나한과 나한신앙, 화를 극복하는 방법, 수험생을 위한 마음집중법 등으로 구성했다.

현재 <사성제 · 팔정도> <육바라밀> <아미타불>이 출간된 상태다.

<사성제 · 팔정도>는 일본 북쿄대학에서 '아라한'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필원(동국대 강사)이 부처님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며 설법을 했는지를 부처님의 윤색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은 <숫따니빠따>와 <니까야>경문에서 주로 인용했으며 저자가 자기 이해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육바라밀>을 엮은 성재헌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은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의 여섯 덕목으로 이뤄진 보살의 길은 배우기도 쉽고, 실천도 용이한 행복의 길이다"며 보살승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덕목을 저자의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들어 쉽게 썼다.

<아미타불>에는 여여법사(문사수법회 대표법사)가 참여했다. 여여법사는 "삶의 진실은 나라는 존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으리만치 내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부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것"이라며 "이를 알아채고 무한한 살려짐에 맡기는 삶이 바로 염불이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저자가 '선택에 따른 파장' '궁극의 세계' '나는 누구인가' '모순된 존재의 구원' 등의 큰 주제를 법문형식으로 다뤘다.

내 영혼의 작은 책 <사성제 · 팔정도> <아미타불> <육바라밀> | 이필원 · 여여법사 · 성재헌 지음 | 민족사 펴냄 | 각 65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자살, 그리고 남은 이들…



한국은 자살률 1위인 국가다. 하루 평균 서른 다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매년 약 12만 명이 자살을 한다는 소리다.

한 사람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못해도 스무 명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매년 최소 240만 명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자살을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들려온다. 그러나 남겨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죽은 사람을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하고 안게 되는 고통과 절망, 자책감 등 수많은 감정이 그들을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다룬 책들은 죽은 사람이 어째서 자살을 택하게 됐는지에만 주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저자 아리안 부아는 자살이 아닌,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야기는 스무 살 청년의 투신자살을 직후로 시작된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 후, 가족 구성원이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가족들은 왜 드니가 죽음을 택했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타인들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질투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쯤, 그들 각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남은 가족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랑스 <마리끌레르>의 뉴스 편집장인 아리안 부아는 오빠를 자살로 잃은 자신의 경험을 작품 속에 살렸다. 가까운 아들의 자살이 변화시킨 가족의 삶을 감각적이고 절제된 문체로 인간 심리를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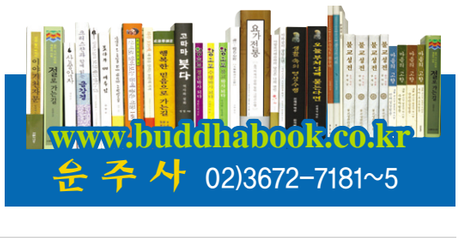
남겨진 사람들 | 아리안 부아 지음 · 정기헌 옮김 | 다른세상 펴냄 | 98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3	낡은 옷을 갈아입고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	불광출판사
5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6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천진/현현	불광출판사
7	초기불교 VS 선불교	방경일	운주사
8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9	선의 나침반	현각	김영사
10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직지심체요절' 강의록 정리



<직지심경 강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대중 강의록으로 저자 덕산 스님(충북 혜은사 주지)이 2006년, 2009년 충북 청주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책에는 <직지심체요절>의 내용 중 과거 7불과 인도 27 조사들의 깨달음과 선문답을 해설한 부분이 담겨있으며 향후 <직지심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설도 모아 발간될 예정이다.

직지심경 강의 | 덕산 해설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 2000원

초등생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꾸민 책이다.

2500년 전 인도의 상황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성도, 전법, 열반, 장례에 이르기까지 55개 주제로 나눠 구성된 책은 각 주제마다 삽화를 넣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초등학생을 위한 부처님 이야기 | 양태석 지음, 공휘 그림 | 능인 펴냄 | 9000원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

381면 | 25,000원

보정정토와 도킹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피력.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Ⅰ Ⅱ Ⅲ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Ⅳ권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近刊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 www.hyo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틀에서 벗어나라

도심포교 선두주자 심산 스님의 신선한 경험담



한국불교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 그 중에서도 홍법사는 도심포교가 활성화된 사찰로 잘 알려졌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불자까지 각 연령별 포교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법사에서는 태어나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의 포교방법으로 영유아수기법회, 동자승 출가제도, 마을상좌 수계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법회와 함께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 등도 개최해 불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수필집 <처음 마음 그대로>는 이처럼 불교 포교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가고 있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포교 열정을 담고 있다.

'아직은 이른 봄' '새싹들의 나들이' '뿌리 깊은 나무를 꿈꾸며' '결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은 스님이 포교현장에서 직접 느낀 체험을 모았다.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과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소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등 어린이 포교 전문단체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포교에 나서는 다른 불교지도자들에게 조언한다.

"매년 고3 수험생을 위한 법회 시간, 법문이 끝나면 발원문을 쓰는 시간을 갖는데 수능 100일 전 법회에 집으로 발송해 처음의 각오를 다시 일깨운다. 이 법회는 부처님과 전혀 인연이 없던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포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영어 템플스테이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이웃 종교에서는 아예 외국인을 채용해 신도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불교의 108배 등을 싫어하면서도 피부색이 다른 원어민 선생님과의 흥미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불교의식의 힘든 과정을 감수하고자 한다."

동글동글 머리를 깎아 더 예쁜 동자승들의 21일 단기출가 이야기, 심산 스님의 고향과 어린 시절 추억, 포교뿐만이 아닌 평소 수행 중에 깨달은 점 등 책 속의 글귀도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스님은 책에서 "푸른 잔디밭을 뛰노는 천진불들 앞에 새삼 나의 출가를 돌아본다. 그때는 오로지 스님다운 스님이 되리라는 불퇴전의 신심뿐이었다"고 회상하며 "발심이 끝없이 나를 향상시키는 계기임을 아는 지금 재발심의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고 말한다.

"신행 매뉴얼이 필요하다" "출가스님들이 참 수행자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등 책 속 스님의 목소리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처음 마음 그대로 | 심산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3000원 노덕현 기자



심산 스님 인터뷰

"'어린이 포교의 날' 등 중흥책 필요해"


<현대불교 자료사진>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는 시기조차 지나버렸습니다. 불교계의 누구나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포교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수필집 <처음 마음 그대로>를 펴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은 7월 6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불교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기에 이번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책 제목 <처음 마음 그대로> 처럼, 심산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 시절 어린이법회 법사로 어린이 불자들과 인연을 맺은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오고 있다.

스님은 홍법사 불사를 시작하기 전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얘기하며 각 사찰 주지스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당시 절이 없어 불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포교에 뜻이 있으니 오히려 어린이 불자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며 "스님들은 사찰에 어린이 불자들이 적어서 어린이 법회 등을 열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적던 많던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날을 정해 새로운 신행의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님은 이날 어린이 포교에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종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로 현재 홍법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 · 유아 수기법회'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마을상좌' 프로그램 등의 전국사찰 일제 시행을 들었다.

스님은 "영유아 수기법회는 가톨릭 세례처럼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으로 자라면서부터 '나는 불자'라는 의식을 심을 수 있다. 또 마을상좌 프로그램은 5~6명 수준으로 가족과 함께 동참해 은사 스님에게 수계를 받기 때문에 100~200명 씩 대규모로 진행되는 기존 수계식에 비해 불교에 대한 애종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각 교구본사에서 동자승 단기출가를 수행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진행한다면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포교의 날이 마련돼 전국 사찰의 대웅전에서 일제히 종이 울리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불자로 거듭나는 그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문화 소식통

남성미 넘치는 한영숙류 승무

8월 15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서 선보여


이철진 한국춤예술원 대표의 한영숙류 승무.

승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리감을 떨쳐버리는 신명나는 춤판이 벌어진다.

한국춤예술원(대표 이철진)은 8월 15일까지 서울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100일간의 승무 이야기'를 선보인다.

평일 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100일간의 승무이야기'는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자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된다.

우선 소극장이라는 공간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기존 불교무용 공연이 연 1~2회 개최의 한계로 인해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연장을 무대로 선택하는데 비해 보다 작은 무대를 선택해 무용수가 뿜어내는 절제된 힘, 손끝에서 느낄 수 있는 춤동작의 흐름 등을 관객들이 느끼게 하고자 했다.

또 승무뿐만이 아닌 태평무 등 굿장단과 어우러진 전통춤도 함께 선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느리고 절제된 발놀음 가운데 기운찬 장삼놀음이 펼쳐지는 '승무'와 빠른 발놀음이 백미인 '태평무'의 조화는 독특하다.

일반인이 승무하면 떠올리는 여성적인 호남 이매방류의 승무가 아닌 남성적인 한영숙류의 승무가 펼쳐지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철진 한국춤예술원 대표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승무 공연, 그리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춤판으로 관객들이 우리 춤의 재미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2)747-5035 노덕현 기자

禪, 추상과 만나다


법관 스님 作, '선으로부터'. 석채와 안료를 섞어 사용해 원색의 균형과 조화를 표현했다.

추상으로 구현된 선(禪)의 세계를 만나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선화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법관 스님은 7월 31일까지 부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트갤러리에서 특별 초대전을 연다. '선(禪)으로부터'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난색과 한색의 보색대비로 이뤄진 추상화들이 전시된다. (051)747-0372 노덕현 기자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大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中 1500×82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금강경 회상승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 · 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

전강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글로서 그 법을 직접 이어받은 78대 대원 선사님의 육성으로 이 법문을 듣는다면 깨달아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낙을 누릴 정법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양 나래를 편 대선지식의 회상에서 정법의 진수를 누리십시오.
국제 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2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일) 오후 2시
회 비 : 1인 8만원 / 가족할인 6만원
전 화 : 031-531-8805 / 010-8980-944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참가자 전원에게 '현종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 수련회 당일은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전화하십시오.

최연의 산 이야기 <18> 황악산 1


학이 날개를 펼쳐 하늘로 오르는 형상을 한 황악산.

붕새가 머무는 곳에 승속이 따로 없구나

〈鵬〉 〈僧俗〉

백두산(白頭山, 2744m)에서 뻗어내려 남쪽으로 향하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그 높이가 차츰 낮아지는데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2천m가 넘는 높은 산을 지나다가 강원도로 넘어오면 1500m 내외로 낮아진다.

충북과 경북을 가로지르며 서남향을 할 때는 1000m 내외로 더욱 낮아지고, 속리산(俗離山, 1058m)을 지나 추풍령(秋風嶺)까지는 5백m 안팎으로 잔뜩 움츠리며 한껏 몸을 낮춘다. 이렇게 한껏 몸을 낮춘 백두대간이 황악산(黃岳山, 1111m)을 지나면서 다시 헌걸찬 기상으로 서서히 높아져 민주지산(岷周之山, 1242m), 대덕산(大德山, 1290m)을 일구고 덕유산(德裕山, 1614m)에서 크게 기세를 떨친 후 남은 기운을 모두 토해내며 지리산(智異山, 1915m)을 일구어 놓았다.

황악산은 백두대간 상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111m로 그다지 높지 않으나 백두대간이 한껏 몸을 낮춘 추풍령에 잇대어 있어 무척 높게 솟구쳐 보이는 지형상의 특징이 있다. 황악산을 경계로 북쪽은 황간(黃澗), 영동(永同) 땅이고 남으로는 김천(金泉), 선산(善山) 땅이다.

황악산 북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줄기는 황간 땅을 적시며 물한계곡을 이루고 포성봉(捕城峰, 933m)에서 흘러내려 반야사를 굽이쳐 흘러온 송천(松川)과 합류하여 월유봉(月遊峰)을 돌아 영동 땅으로 북서진(北西進)하다가 금강(錦江)으로 흘러든다. 남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줄기는 직지사 능여계곡을 지나 직지천(直指川)을 이루어 남동진(南東進)하다가 대덕산에서 흘러내린 감천(甘泉)과 김천 땅 황산(黃山) 아래서 합류하여 선산 땅으로 접어들어 해평(海平) 너른 들판을 적셔주고 낙동강(洛東江)으로 흘러든다.

황악산은 육산(肉山)이다. 어려움 없이 넉넉한 품에 안길 수 있는 너그러운 산이다. 황악산 정상에는 큰 나무들이 없어 전망이 장관을 이룬다. 남쪽으로는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주능선의 연봉들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멀리 낙동정맥(洛東正脈)의 산봉우리들이 아련하다. 서쪽으로는 2백여 리 밖에 금남정맥(錦南正脈)의 산줄기가 구름처럼 펼쳐진다.

황악산은 황학산(黃鶴山)이라고도 불리는데, 학이 날개를 쫙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황학은 누런 금빛 학을 말하는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속의 상서로운 새이다. 학은 고아(高雅)한 기품을 지닌 새로서 풍수학에서는 학모양의 산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낳고 기른다고 한다. 학모양의 산에 서린 선계(仙界)의 기운으로 도인(道人)이 많이 나온다고 보았던 것 같다.

<동사열전東師列傳>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벽계정심(碧溪正心)이라는 대덕(大德)이 황악산에 숨어 살았는데 승려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환속하여 머리를 기르고 황악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물한리에 은둔했다고 한다. 벽계정심은 조선조 선교(禪敎)의 법맥을 이은 선사로서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 초까지 살았는데, 벽송지엄(碧松智嚴)과 정련법준(淨蓮法俊)을 제자로 두었고, 서산부용(西山芙蓉), 소요(逍遙), 벽암(碧巖) 등 조선조의 고승대덕들이 거의 모두 그의 법맥(法脈)을 이었다.

이렇듯 불교의 정통 법맥을 전했다는 벽계스님이 환속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조선 초기에 불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같은 시기에 수행했던 무학(無學)이나 함허(涵虛) 스님 같은 이들이 환속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그 의문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벽계스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벽계정심 때문에 북산(北山)을 옮기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붕(鵬)새가 남녘바다로 나는 것을 자꾸 되새겼다.

붕새는 <장자莊子>에 나오는 새로 범속을 초월한 무애(無碍)의 경지를 상징하듯 벽계 스님의 환속이 더욱 자유자재한 삶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참된 도(道)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다는 뜻일 것이다.

황악산 서쪽 기슭 물한계곡에서 벽계 스님이 속인(俗人)의 모습으로 은둔생활을 하며 벽송, 법준과 같은 제자들을 길러냈다면, 황악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직지사(直指寺)에서는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받아들일 준비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감자꽃

아내도 아들도 없는 오후의 집은 고요하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세상은 낯설다. 마당가에 서서 나보다 대여섯 배는 큰 나무들을 올려보다가 나뭇가지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눈길을 주고 서있으니, 누구인가? 언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건만 조각 하늘도 낯설기만 하다.

'쾅'. 마루에 앉아 있자니 헛간 강철지붕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밤에 내 마음까지 덜컥 떨어뜨린 소리다. 이게 무슨 소릴까? 어디 기둥이라도 썩어 헛간이 주저앉기라도 한 것일까? 지난밤의 일을 떠올리며 소리가 난 곳을 살폈다. 마당에 뒹구는 살구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딱새들도 엄청 놀랐겠구나!

살구가 떨어진 헛간 지붕 밑엔 외벽에 걸어놓은 페인트 깡통에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 딱새 부부가 있다. 며칠 전부터 교대로 들락거리며 푸른 벌레를 물어다주고 하얀 똥을 물어내는 모습이 분주하게 눈에 잡혔다. 첫 포란에 실패했는지는 몰라도 꽤 늦어서야 알품기에 들어가 부화에 성공한 부부다. 나무부스러기와 개털과 이끼를 물고 깡통에 들락거리는 것이 보이는가 싶더니, 둥지를 떠나는 새끼들을 부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볼 날이 오늘 내일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번식이다. 하긴 살구꽃이 피었을 때도 어제였다.

언제부터였더라? 생각하니 매미가 울기 시작한 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산속 세상의 흐름은 보이지 않게 흘러간다.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았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십 년이 흐른다.

>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 아깝다는 마음도 들지 않으니
> 이것은 또 무슨 변화인가?

마당에 떨어져 썩어가는 살구들을 바라보니 10년의 세월이 만져진다. 먹고 술도 담고 잼도 만들어 아는 이에게 한 병씩 주던 때도 이젠 옛날인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깝다는 마음도 들지 않으니 이것은 또 무슨 변화인가?

아직 감자꽃이 피어 있을라나? 집 뒤 밭에 심어놓은 감자가 어찌됐나 싶어 발길을 옮겼다. 잠시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 캘 때가 되는 것이 감자였다. 사람들은 감자알을 더 굵게 하려고 감자꽃의 목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꽃을 따주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농부들의 삶을 따라야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다. 어쩌다 보면, 살랑살랑 바람에 일렁이는 하얀 모습이 예쁘기도 한 꽃이었다.

언제 이렇게 가꿔놓았을까? 아내도 그새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나?

감자밭 아래에 자리한 밭이었다. 지난해에 고추를 심었던 밭이어서 올핸 무언가를 심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곳에 아내가 채소밭을 일구어놓았다. 이젠 우리 집 세 사람 먹을 농사만 짓자고 했었다. 채소는 눈에 잘 띄는 손바닥만한 터에 꽹이로 북북 긁어 퇴비나 서너 포대 넣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있는 대로 씨를 뿌려, 나오면 나오는대로 먹으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은 없었지만 아내는 내 생각이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쩐지, 아랫집에서 오이와 토마토 양배추와 배추 호박 등의 모종을 주는 대로 받아 들고 오더라니. 아내의 속마음이 읽혀지니 작은 웃음이 나도 모르게 피어난다. 채소밭은 아내에게 밥상과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했다.

밭은 볼수록 영락없는 밥상이다. 고추장을 찍어먹는 오이가 밥상 오른쪽에 오르는 것과 같이 밭에서도 오른쪽 한쪽을 차지한 채 지지대를 기어오르고 있다. 안쪽으론 양배추와 배추 줄이 있고 밥에 넣어먹는 콩도 중간쯤에 한 줄 자라고 있다. 앞부분에 심어놓은 상추는 이미 다 자라 뜯기고 또 뜯기면서 키를 키웠다. 작년에 듬성듬성 자라났던 아욱도 씨앗이 떨어진 상태 그대로 싹을 틔워 자란다. 호박은 그 다음 줄. 수박과 참외는 후식인 듯 뒤편에서 줄기를 뻗고 있다. 왼쪽 맨 가장자리엔 간식거리 옥수수도 자란다. 열무도 무성하게 커서 옥수수 앞부분을 차지하여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더할 것 없는 밥상이다.

바라보며 서있자니 불현듯 채소밭 이곳저곳이 소란스럽다. 한번쯤은 본 듯한 얼굴들이 둘러앉은 식탁에 아내와 아이의 모습도 보인다. 감자꽃 송이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나는 얼른 감자밭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 물

K 샌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4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조극게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함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몰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몰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용두 작명 역학 연구소
수강생모집.
제기역3번출구
최단기간에 성심껏지도
02)3295-3456
011-9020-8215
달마 김대영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님 자연의 치유법으로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45세 이하 남.녀 다섯분까지
금화산 관음사
031)533-0741
www.saam.asia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염불 역학
1달 속성 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숙식가능
011-716-3811

공양주 모십니다
남녀 행님
▷경기 안성에 산세수려한 도량
010-8954-8033

동영상 기문둔갑
- 26강좌로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홍국(한국)기문둔갑, 평생의명, 육친, 신수, 일진의 길흉, 결혼날짜, 장사 잘되는 개업식날 잡는 법 등등 강의
- 그외에 사주원리, 용신, 일진내정법
- 명반법(낙화법), 육효, 파동성명학과 오운육기등의 과목을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좌입니다.

www.beumchun.com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은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사무직원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대전
010-5792-3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산사
054)772-4133

한국선불교조계종 강원도 대덕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9219-7695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
▷35-50세 사이
▷부산 동래구
한국불교태고종 원광사
051)558-883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공양주 구합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암
041)673-2333

주지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748-1080

공양주 보살님 (60세 이상)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314-984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노보살 원함
02)917-3363

공양주 구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010-8922-1168

공양주 모십니다 남녀 행자 모십니다
▷전남 해남
▷오실 분만 전화주세요
061)537-4747
010-3163-4747

역학무료 숙식강의
남녀 스님 불자
▷달마선원 대현사
011-223-3334

암자 지을 땅 시주하실 불자님 인연 만남
원성취 지대원
010-4182-1874 신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공양주 구합니다
▷전남 화순 소재 전통사찰
061)372-3765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침술秘法무료강의
초종과! 본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의활용, 초간단명리(적중율90%)
제2강 : 오행과 침술, 따주기 비법, 내몸내가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 허리, 무릎, 중풍, 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 (한의학 박사 강의)
강 의 : 매주 화~수요일 10시~16시(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 야간 070)8861-3359 팩스 : 221-3358
핸드폰 : 스님 010-9027-3117
함께 나누는 세상을... - 좋은날 되소서 - 의암 합장

사과 드립니다
법명 : 대월 (대각사 주지)
대각사에서 '불교의식 학인모집' 광고를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유네스코 등재)' 문안을
해당 단체의 동의 없이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정정하오니 해량바랍니다. -대월 합장-

대체의학 비법전수
1. 중풍환자 혀가 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대체의학 비법전수
1. 중풍환자 혀가 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상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문의 :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도요타홈미싱
법복수선 / 정신수양
- 모터 힘이 강력하여 [법복 수선]도 척척
- 생산적인 작업에 집중하여 [정신 수양]에 최적
- 각종 주머니, 손가방, 보조가방, 걸망을 원하는대로 손수 제작
- 추천모델: EC164(149천원), 무료 택배, 사찰 주문시 사은품

문의.02)2637-4172
홈페이지 www.toyotakr.com
도요타자동차 기술이 미싱으로!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심중점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행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3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과정 ◆
■ 실기교육 : 홍은사 주지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모 집 : 수시모집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초보자도 여법하게 불공과 제의식 가능하도록 교육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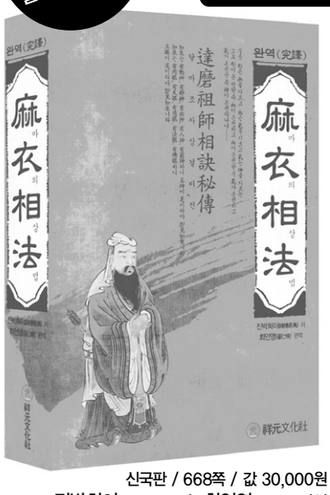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완역(完譯) 麻衣相法 마의상법
이 시대 최고의 관상서!
국내 최초 완역(完譯)!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무릇 形은 血을 기르고 血은 氣를 기르고 氣는 神을 기르는 고로 形이 온전한 즉 血이 온전하고 血이 온전한 즉 氣가 온전하고 氣가 온전한 즉 神이 온전하나니……

신국판 / 668쪽 / 값 30,000원
진박희이陣搏希夷 저 최인영崔仁映 편역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의상법〉 역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文化社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외 2동
- 요사 : 9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서울
- 법당 : 40외 10
- 요사 : 30외 30
- 부지 : 11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인천
- 법당 : 50평
- 요사 : 45평
- 부지 : 40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서울명산에 소재한 기도 영험 도량입니다
- 천하 명당 사찰임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 가액: 12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지리산 아름다운 절
- 총 대지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토방 10평
- 사계절 계곡물 철철, 정남향
- 아름답고 마당 넓은 사찰
- 가액: 6억 8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107평, 건물 4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실大, 방3 (화장실2,남향뒷야산)
- 차량마당진입, 건축비 1억8천만원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송파, 천호 20분거리
- 부지 133평
- 건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외 30평 ●산신굴법당
- 주변여건 : 4차선 대로선 앞
- 뒤는 야산, 경관 예쁘고 마당 500평 이상 사용중
- 가액: 12억

010-2862-5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 법당 29평, 요사 30평
- 공양실, 창고(콘테이너)
- 대지 264평(기타 80평)
- 가액: 5억 (부동산사절)
- 직거래하실분만연락바랍

010-8710-789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 건물 약 50평
- 땅은 종중땅
- 건물 등기 有
- 가액: 3천만원

010-8852-1479 법정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연기군 세종도시 근접지역
- 전통사찰 삼존불 기도도량
- 미륵불 및 주차장 완비
- 요사채 방3, 주방, 거실, 심야전기
- 창고에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전세가능)
- 자세한 사항은 상담 후 결정

010-5498-65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전철 8호선
- 법당 40평, 방2
- 주차 다량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070-7717-9303
011-857-3775
010-7459-2977

동해바다 사찰터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 대지:540평(평당 100만원 조정)
- 시내중심가 2km 인 산자락
- 연못 2개소, 홍련, 백련 2년생
- 앞-시내, 바다 뒤-산자락
- 야생화 자연스런 조경 전망 및 야경 좋음

010-4544-081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학교 부근
- 평수 : 218평
- 시설: 법당 2동, 요사채 2동, 불탑 3동
- 가액: 2억 5천만원
- 원주시청에서 7분거리로 원주시내권이며 경관 수려함
- 2차선 도로접

011-9918-1955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가정동
- 평수: 65평(3층건물중 3층 전체)
- 법당 20평, 방4, 공양간 大, 화장실 2
- 주차장등 시설완벽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8427-619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사거리 상업지역
- 3층, 60평
- (옥상포함. 전체사용가능함)
- 보증금+시설비 6천만원 월 62만원 ●현법회중
- 뒤에 산과 폭포있음

011-496-641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주택가 횡단보도 사거리
- 2층 30평 ●소불 100불 인등 270등, 탱화10점
- 보증금 4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시세 절반가 1600만원
- 1층은 불교용품점 비구니스님 도량으로 최적

010-2446-2626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3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 산세 좋아 편안함 마을인접 남한강이 보이고, 양평 시내 인접
- 수행터 비구니 스님 적합 요양지 투자 적합
- 대지 250평, 건평 50평
- 방4, 화장실3, 대형거실1
- 가액: 2억 9천만원 (융자 1억 2천만원 포함)

010-4736-356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부근 , 앞 지하철
- 4층 건물에 3층, 40평,
- 삼존불(청동부처님), 지장각, 탱화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 법당 및 비품비, 집기일체, 시설비 3,0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7771-98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 고속도로 IC 2분거리
- 대지 약 330평
- 법당 25평, 요사 25평
- 주지실, 처소 각 10평
- 해수관세음보살석불입상 (높이 6m), 주차장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011-9388-0975

도심 속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4, 주방 2개, 거실 1
- 가액: 1억 8천만원 (5천만원, 대출 가능함)
- 전세도 가능함
- 주인직접

011-792-896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내, 위치 최상
- 큰법당, 불단시설, 방 2, 큰거실
- 평수 40평,
- 가액: 2천 3백만원 (절충가능)

010-3603-3836
010-5038-4512

쑥뜸방(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온천 역세권, 아파트 밀집지역,각 노선버스 정류장, 홈플러스, 재래시장 입구
- 법당 겸 쑥뜸방, 시설 깔끔
- 3층, 33평
- 가액: 합 4500만원
- 기술 책임 전수, 비구니 보살님 적합
-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017-560-1035

시내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 대지: 50평
- 1층 : 방4, 거실, 주방, 화장실
- 2층 : 방3, 화장실, 주방
- 3층 : 법당, 지하실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금오산 기도도량
- 사찰터가능
- 대지 2000평, 임야 4000평
- 건물 15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양도도 가능

054)443-8382
011-820-0053

도심속 사찰터 안내

- 31만명 원주시 중심, 삼면이 5m인 높은 성, 아주 큰나무
- 20여 구루. 주변 아파트단지 예정인, 조건 좋고 예쁜 터.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동
- 대지 = 645평
- 건1=2층(50+50평), 지12평
- 건2=허가50평+무허50평
- 가격 = 평당 300만 +α

011-9867-8871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목4동
- 3층 건물중 3층 40평
- 4층 옥상(창고) 전체사용
- 방2(침방,친견방),법당,공양간, 해우소,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천수천안
- 치성광여래,산신원불, 해당 각각 후불탱화
- 즉시법회가능
- 시설 및 집기 최상급 일체 4,000만원-절충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010-3342-41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중앙동
- 법당과 안쪽 방1칸
-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200만원
- 이전불사관계로 급 안내

055)262-3679
010-4877-16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7호선 전철입구 내방역 2번출구
- 4층 건물 중 3층 , 50평
- 최신 인테리어
- 삼존 청동불
- 보증금 3천만원, 월 29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5851-49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역세권)
- 3층건물중 3층 45평
-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607-0108

절터안내(대지)

- 위치 : 경주시 내남면 명계1리 경주시내에서 20분거리, 울산에서 30분거리
- 경주의 최고의 대 명당, 대 길지
- 마음대로 건축가능, 대지 267평 큰채, 아래채, 창고, 헛간 있음
- 투자가치 최고 "확실" ●주변 대나무밭
- 사찰용도 평당 50만원 보시

010-3322-0108

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53-8
- 대지 107평
- 건평 총건평 약 190평(텃밭 있음, 채소, 과일나무)
- 지하 20평, 1층 70평,
- 2층 60평 법당, 거실, 방2, 주방거실, 화장실2
- 3층 32평 미륵전 방4, 창고 2
- 포교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송군(영천)
- 평수 약 2000평,
- 건물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15평
- 황토방 2칸, 산신각(목조) ,20년된 사찰
- 사찰 주변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 인연이 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임
- 가액: 2억 5천만원
- 기도 시간외 연락바랍니다

011-541-4495

사찰부지 안내

- 불교연수원 및 템플스테이 장소로 적합
- 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 지목: 토지임야(보존관리지역)
- 평수: 4500평 (3000평도 가능)
- 특징: 정남향(절골)쾌적하고 조용함
- 서울 강변역 59km 한시간거리
- 가액: 평당 23만원 주인직접

010-2215-365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국도변
- 대지 약 200평 ●요사채 65평 1동 (단층양옥)
- 법당 20평(아미타 삼존불)
- 스님, 법사님 적격
- 가액: 2억 1천만원(절충불가) (은행융자 7000포함)
- 전세 가능(1억 1천만원)

010-8675-8011
055)328-48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가격절충)

010-5430-396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영천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지 196평(종교용지) ,●주차장, 텃밭 175평
- 방 5개, 법당 15평(목조)
-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 1천만원

054)338-0048
011-769-7029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㉖ 휜 다리 2

'양반다리' 신체 불균형 줄수 있어

온돌은 다른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문화입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것이기에 벽난로보다 열효율이 좋고, 집안에서 불을 때는 것이 아니기에 집안이 그을음으로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바닥이 따뜻해 집안에서 맨발로 활동하게 되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집안에 흙먼지가 돌아다니게 되는 서양보다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예부터 한국은 온돌 문화가 성행하면서 좌식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식 생활은 우리 체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가장 불편했던 것이 바로 서양의 카펫문화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거실과 침실 등에서 생활하는 것이 비위생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카펫 문화는 대신 테이블과 소파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양인들의 체형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반듯한 다리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체형교정 전문가로서 양반다리가 사람의 체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점에서는 그들의 문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심코 바닥에 앉을 때, 대부분 한쪽 다리를 나머지 한쪽 다리에 올립니다. 이 동작이 바로 골반이 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자연스레 다리 길이가 차이 나게 됩니다.

양반다리는 골반불균형, 다리 길이 차이뿐 아니라 무릎의 비틀림(Distortion)이 동시에 일어나 종아리 모양을 벌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휜 다리는 종아리가 비틀어져 보이며,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다리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휜 다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동양권임에도 양반다리 좌식생활을 하지 않는 나라인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대만, 홍콩 등의 사람들은 대부분 바르고 균형 잡힌 다리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반다리 좌식생활은 불균형한 다리모양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필자의 지인 중에 다리 전문모델이 있습니다. 그 분의 경우 음식점을 가더라도 바닥에는 절대 앉지 않으며, 항상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엉덩이가 퍼지지 않도록 오래 동안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른 자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에게 O형 다리교정을 위해 한 여성분이 방문했습니다. 이 여성분의 다리는 전형적인 휜 다리 형태로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리 길이가 3㎝정도 차이 났으며 엉덩이가 쳐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상체에 비해 아주 짧아 보여 고민이 많던 분이었습니다.

탄력적인 엉덩이와 바르고 균형 잡힌 다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 생활습관을 교육해 드렸습니다. 평상시 앉을 때의 자세, 걸을 때 자세, 서있을 때의 자세, 누어있을 때의 자세 등 바른 자세의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반다리는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6개월간의 맞춤전신교정 및 체형교정 맞춤운동 결과 초기에 벌어지고 퍼진 엉덩이는 힙업(Hip-Up)돼 탄력 있는 엉덩이로 바뀌었으며, 벌어진 다리로 인해 늘어지고 처진 허벅지 안쪽의 근육들은 단단하고 탄력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됐습니다.

무심코 우리가 생활화 했던 양반다리가 우리 체형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바로 예쁘고 곧은 다리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오다리 교정 전후.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⑭ 목욕과 지압법

두통 징후오면 발을 차게 해라

편두통은 머리 한 쪽이 마치 맥박이 뛰듯 욱신거리고 지끈거리는 증상을 말한다. 뇌의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되거나 확장돼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증세이다. 두통이 시작되기 전, 눈앞에 지그재그 모양의 번쩍거리는 불이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며 신경계의 장애나 갑작스런 기분장애가 나타나는 선행증상이 생긴다. 편두통은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보통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이 나타나며, 편두통을 앓는 사람의 3분의 2가 가족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두통이 있으면서 때로는 매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풀릴 수 있다.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며 남에게 예의 바르고 유능하며, 성취욕이 강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편두통의 제일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이다. 편두통은 스트레스로 인한 뇌압 상승과 혈관 수축으로 인한 통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치료의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목욕이 많은 도움을 준다.

편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욕법과 지압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편두통이 시작되기 직전 얼굴색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얼굴에 홍조를 띠는 형과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다. 긴장을 하면 머리로 가는 혈관이 급격히 확장돼 얼굴이 붉어진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형으로 주로 뚱뚱한 사람에게 많다.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키려면 몸의 일부를 차게 해야 한다. 몸을 차게 한다고 머리를 직접 차게 하면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두통의 징후가 오면 머리에서 가장 먼 발을 차게 해야 한다. 장딴지에서 발끝까지 찬물에 담근다. 말초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반사적으로 머리혈관도 수축하게 돼 두통발작이 멈출 수 있다. 반대로 긴장하면 머리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얼굴이 새파래지는 사람도 있다. 술을 마시면 창백해지는 사람인데 마르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많다. 수축된 혈관을 확장시키려면 몸을 뜨거운 물과 찬 물에 교대로 담구는 온 · 냉 교대욕이 효과적이다. 팔꿈치와 허벅지 밑을 뜨거운 물에 2~3분간 담갔다가 찬 물에 10~20초 가량 담근 후, 손과 발을 비벼주는 것을 5~6회 정도 반복하면 된다. 그러나 고혈압인 사람은 이 방법을 피해야 한다. 급격한 자극이 혈압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적절한 지압도 편두통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주먹을 쥐고 손끝에서 2번째 마디로 머리를 압박하는 방법이다. 양손 주먹을 쥐면 8개의 마디가 생기는데, 그것으로 머리의 각 부분을 압박해 가는 방법이다. 첫째 머리의 정수리를 압박한다. 모든 혈(穴)의 기운이 모여 있어 백회(百會)라고 한다. 그곳을 강하게 압박하면 심한 통증과 아울러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내부적인 병변이 외부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아시혈(阿是穴)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양쪽 관자놀이를 태양혈이라 하는데 그곳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좋다. 셋째 주먹을 쥐면 손금의 감정선이 끝나는 곳이 있다. 감정선이 끝나는 곳과 다섯째 손가락의 3째마디 밑의 조금 들어간 곳을 후계(後溪)혈이라고 하는데, 두통을 가라앉히는데 좋은 혈이다. 넷째 발가락의 발톱언저리의 새끼발가락 쪽 모퉁이를 궁음(窮陰)이라고 하는데, 이곳도 편두통에 매우 좋은 치료 혈이다. 좌측 편두통에는 좌측 궁음, 우측 편두통에는 우측 궁음을 집게 손가락의 손톱 끝으로 강하게 3~4초가량 눌러주는 것을 3~4회 반복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으로 치즈 · 햄 · 핫도그 · 냉동오렌지 · 초콜릿 · 커피 · 콜라와 같은 발포성 음료이다. 두통을 예방하는 식품으로는 옥수수 · 미나리 · 메밀 · 무즙 · 쇠골 · 검은콩 · 결명자 등이 있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㉖ 영춘권 2

쉽게 따라할 수있어 여자들에 인기

영춘권은 엄영춘의 남편 양박주에 의해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영춘권은 그의 제자 황화보, 양이제에 의해 광둥성 · 푸젠성 등에서 성행했고, 그들의 제자인 양찬은 '영춘권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당대의 고수로 자리했습니다.

그는 일생에 단 4명의 제자만을 뒀는데, 그 중 진화순이 길러낸 제자 '엽문'이 영춘권을 세계로 퍼뜨리는데 일조 했습니다. 엽문은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자, 홍콩으로 옮겨가 영춘권의 본거지로 삼습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이소룡도 바로 이 엽문의 제자로써, 영춘권 기법과 홍가권, 태권도, 공력권 등의 기법을 골고루 차용한 절권도를 창시했습니다.

영춘권은 광주파, 엽문파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엽문 부자가 이끈 엽문파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영춘권은 본토 보다 미국, 유럽 등 서양에서 크게 성행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엽문의 비공개 제자인 양정 노사 계열의 영춘권이 성행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술의 기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소령 역시 자신의 무술 절권도를 전파할 때 절권도가 영춘권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소룡 발언 때문에 영춘권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영춘권은 전통적인 중국무술과 달리 마보 자세가 협소합니다. 영춘권과 더불어 남파무술의 명권(名拳)인 홍가권과 채리불권의 경우 장교대마의 특성을 지녀 넓은 보법으로 공방을 전개하지만, 영춘권은 이와 반대인 단교협마로 좁은 보법으로 공방을 전개합니다.

영춘권은 신체 활동의 폭이 제한적이고, 힘이 약한 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여자들에게 인기였습니다. 간혹 무술영화에서 영춘권을 두고 "흥! 계집이나 하는 무술!"이라며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대목이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춘권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과학적인 무술입니다. 예로, 주먹으로 직선치기(스트레이트)를 했을 때, 작용점은 직선으로만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선방향이 아닌 옆에서 건들기만 해도 타점을 못 맞춤과 동시에 몸의 균형마저 잃게 됩니다. 균형을 잃은 몸은 당연히 많은 허점에 노출되게 됩니다. 야구에서 투수의 공이 타자의 배트에 파울과 같이 빗맞기만 해도 굉장한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영춘권이 갖고 있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춘권의 시초 엄영춘.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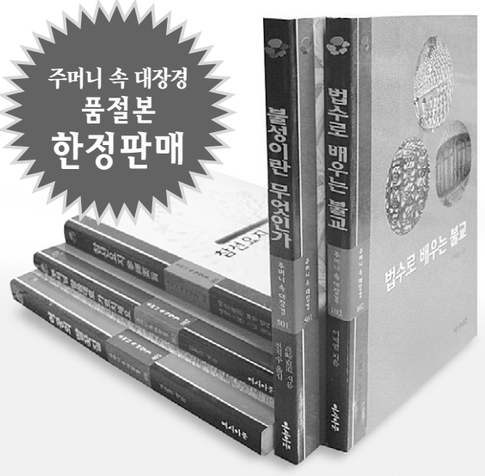
792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 ● 평수 : 30평
● 방3, 법당 ● 월45만원
● 보증금+시설비 900만원
불법포교의 원을 세우신 스님께
공간을 무료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043)532-3271 / 010-3240-32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영천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지 196평(종교용지) ● 주차장, 텃밭 175평
● 방 5개, 법당 15평(목조) ●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 1천만원
054)338-0048 / 011-769-702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50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 소개료, 수수료가 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주머니 속 대장경 품절본 한정판매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 195쪽 | 값 4,500원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옮김 | 205쪽 | 값 4,500원
참선요지 參禪要旨
대성스님 지음 | 278쪽 | 값 6,500원
허공의 딸꾹질
이종찬 지음 | 282쪽 | 값 5,500원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혜능스님 엮음 | 329쪽 | 값 6,500원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산자전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다구를 찾아서 ㉑ 사모바르

러시아인의 풍토성 그대로 반영

그림은 바실리 막시모프(Vasily Maximov, 1844~1911 러시아 이동(移動)파 화가)의 작품으로 19세기 러시아인의 홍차 마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현관 앞에 놓인 사모바르에서는 물이 끓고 있으며, 노부인은 홍차를 마시려는지 테이블 위에 설탕 단지와 그릇이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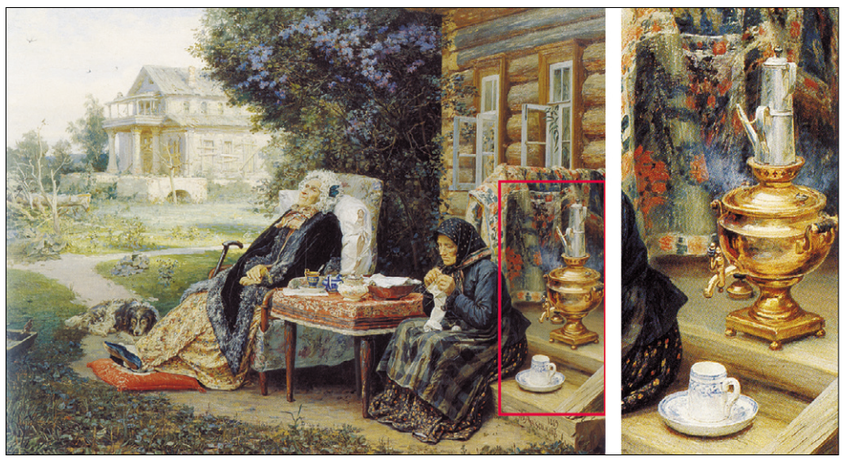
홍차에 관해 말할 때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 러시아인들의 홍차 소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기도 하지만 사모바르가 그들의 이런 풍토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모바르(самовар)는 직역하면 자비관(自沸罐), 즉 스스로 끓는 탕기라 말할 수 있다. 사모바르는 몸체 한가운데 있는 원통 안에 잘게 자른 나뭇조각을 넣고 불을 지펴서 몸체의 둘레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안쪽과 원통 사이의 공간에 채운 물을 끓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우리나라의 신선로와 비슷하다. 다른 탕기와 비교해보면 사모바르는 러시아의 기후에 가장 알맞게 개발됐다. 1년의 대부분이 겨울인 러시아에서 사모바르는 찻물을 끓임과 동시에 실내를 따뜻하게 데우는 훌륭한 다구였다. 게다가 그 모양이 아름다워 장식의 효과도 있었고 휴대도 가능했다. 사모바르는 붉은색 구리를 주재료로 만드는데 대부분 은으로 도금한다. 하지만 사모바르가 언제, 어디서 최초로 발명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톨스토이의 고향 뚤라에는 사모바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모바르 박물관이 있다. 뚤라에는 19세기 말까지 러시아 전역에 사모바르를 공급하는 공장들이 모여 있었다.

러시아로 차가 전파된 경로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설에는 이라크나 터키에 보급된 차가 아라비아 대상들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청나라와 러시아가 정식으로 통상을 시작하면서 차가 러시아에 안정적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차가 들어온 초기에는 상류층에서만 마실 수 있는 값비싼 음료였다. 그래서 사모바르는 항상 여주인이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하는 사모바르는 언제나 깨끗하게 닦아서 광택을 내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점차 중국으로부터 차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난한 소작농의 집에서조차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자 사모바르는 그야말로 러시아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다. 그리고 사모바르는 러시아의 주변국인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으로 전래됐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에는 러시아식 홍차 마시는 방법이 그대로 전래돼 사모바르가 애용됐다.

러시아에서 홍차 소비가 늘어나면서 19세기 중엽부터 자국 내에서 차 재배가 시도된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그루지아에 처음으로(1847) 다원(茶園)이 만들어지지만 본격적인 차의 재배와 생산은 약 100년 후부터 이뤄졌다. 그 후 남쪽으로는 이란 국경 근처의 아제르바이잔에, 북쪽으로는 그라스노다르에 다원이 만들어져 1989년에는 약 12만 톤의 차를 생산했다. 하지만 소련의 해체로 인해 현재는 오히려 차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러시아인들의 생활양식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시켰다. 음다 역시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 이후 사모바르 공장은 사유에서 국영으로 그 소유주가 바뀌면서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군사용으로 제작됐다. 그리고 석탄이나 나무를 태우는 방식에서 전기를 이용해 작동하는 사모바르로 변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장식적인 용도의 제품이 주로 만들어지게 됐다.



바실리 막시모프(Vasily Maximov) 作. 캔버스 위 유화, 72×93.5cm. 모스크바 스테이트 트레차코프 갤러리(The State Tretyakov Gallery) 소장.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㊷ 청도 운문사(雲門寺)



소나무 숲길에 들어서자 개울물 소리가 발끝을 적셔왔다. 숲엔 나이를 물을 수 없는 소나무들이 법을 이은 부도처럼 의젓한 간격으로 서 있고, 그 숲길 끝에 풀 먹인 장삼처럼 운문사가 서 있었다.

7월의 태양은 뜨거웠다. 그늘 하나 없는 텃밭에서 대중이 울력을 시작했다. 강원에서 경전을 넘기던 손끝엔 뜨거운 밭고랑이 지나가고, 먼 산에 대고 소곤대는 도반의 이야기는 한 점 바람처럼 지나간다.

밭고랑엔 경전으로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이 있었다. 운문사의 텃밭은 또 다른 강원이었고, 뜨거운 밭고랑은 또 다른 경전이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 4도 칠보난순라망행수토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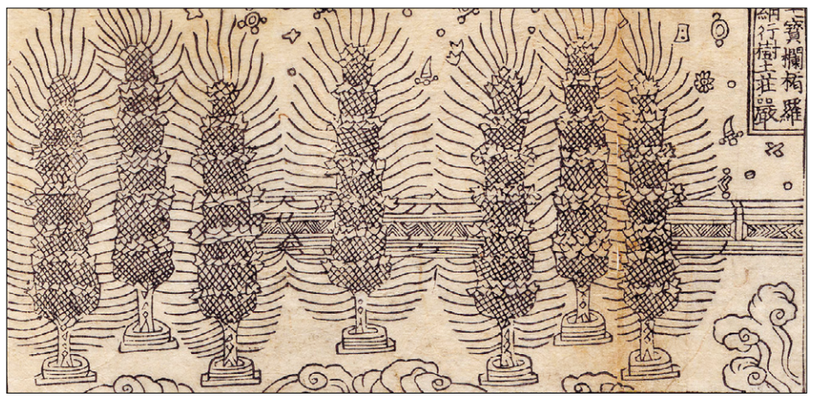
보물이 달린 일곱 그루의 가로수가 줄을 이어 극락을 장엄하고 있다. 가로수는 금, 은, 청옥, 수정 등이 그물에 싸여 칠층으로 이뤄져 있다. 가로수 뒤편으로는 난간이 표시돼 있으며, 네 가지의 보물들은 눈부신 모습으로 가로수의 뒷면에 광배로 표현돼 있다. "우사리불(又舍利佛) 극락국토(極樂國土) 칠중난순(七重欄楯:극락국토에 있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널빤지) 칠중라망(七重羅網: 극락국토를 장식하고 있는 그물, 구슬을 꿰어서 일곱 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칠중행수(七重行樹: 극락국토의 보배로된 가로수, 일곱 겹으로 줄을 지어 서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 개시사보(皆是四寶) 주잡위요(周帀圍繞) 시고(是故) 피국(彼國) 명위극락(名爲極樂)."

본문의 이 내용은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일곱 겹 나망과 일곱 겹 가로수가 있는데, 금 · 은 · 청옥 · 수정 등 네 가지 보배로 두루두루 둘러 싸여 있으므로 그 나라를 또한 극락이라 하느니라"라고 설명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름답게 장엄된 가로수의 모습을 통해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무량수경>에는 가로수의 아름다움으로 극락세계를 더욱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무량수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 국토에는 칠보로 된 갖가지의 나무가 온 세계에 꽉 차 있는데, 금으로 된 나무, 은으로 된 나무, 유리나무, 파려나무, 산호나무, 자거나무들이 있으며, 혹은 두 가지 보배, 혹은 세 가지 보배에서 일곱 가지 보배가 합해 이뤄졌느니라. 금 · 은 나무에는 금과 은으로 된 잎과 꽃, 열매가 열리고, 유리 나무에는 파려의 꽃과 열매, 보배 나무는 자거를 뿌리로 하고 자금의 줄기와 백은의 가지, 유리의 줄기에는 수정의 잎과 산호 꽃, 마노의 열매로 됐다. 이와 같이 칠보가 서로 번갈아 뿌리와 줄기가 되고 가지와 잎과 열매가 된 보배 나무들이 극락세계에 가득하느니라. 그 찬란한 광채는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다. 맑은 바람에 보배 나무가 살랑거리면 다섯 가지 소리가 미묘하게 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느니라."

<아미타경>의 내용과 <무량수경>의 내용을 두루 살펴보니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감동을 애니메이션, 게임이나 판타지 세계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템플스테이 체험 교육 마련한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불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불경의 재해석이요, 새로운 포교의 방법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 4도 칠보난순라망행수토장엄(七寶欄楯羅網行樹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www.buddhashopping.com
NAVER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쳐보세요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0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옷-동남/동녀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옷-수자 할인가 각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범어,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한지 108사경책
28호 대불정능엄신주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한지백팔사경
할인가 14,000원(10권이상)
정 가 20,000원(1권)
5종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 515-2988, 555-1087, 508-9377~8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나 하나 죽으면 아무것도 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초보적인 마음 다루는 공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한 분만 있다 해도요. 그리고 열 번을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시길 바라고요.

첫째,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모습이면 누구나가 다 인간이라고 보지만 탈만 인간이지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네 과거의 모든 걸 모르거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각본대로 너한테 다가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가는 걸 보면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누구더러 물어보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한 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것이요, 지금 하고 돌아가는 거는 미래의 각본이 되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돈이 벌리는 것도 안 벌리는 것도 사실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말 어리석고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사는 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는 탤런트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苦)'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에서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集)'도 붙고 '멸(滅)'도 붙고 '도(道)'도 붙고 이런 게 다 붙어요. 크고 작은 게 붙고 좋고 언짢은 게 붙고, 언짢은 건 끊어 버리고 좋은 걸 붙게 해도 역시 언짢은 게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아주 기묘한 이치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또 한 번 하고 넘어가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사람의 육신 속에 미생물들이 수없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미생물들이 있기 이전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어떠한 아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저항력을 발휘해서 필사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입니다. 그건 왜냐?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고, 그렇게 침입 못하게끔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이끌어 가는, 수십억 마리를 이끌어 가는 대표인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각을 안 해 줍니다. 일을 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에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나 똑같죠. '구태여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딴 데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라는 게 극히 두렵다면 두렵고 무섭다면 무섭고 자비하다면 자비하고 너그럽다면 너그러운 겁니다.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그렇게 너그러운가 하면 그것을 또 한 번 뒤집어 본다면 그 체 없는 마음들이 악을 수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수없이 이루어서 그저 인연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닿는 대로 끌어다가 우환을 일으키고 가환을 일으키고 병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체험을 해 본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체험을 해 보지 못하고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 팔자야. 왜 내가 이러나." 하고선 한탄, 하소연만 하지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탄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원력이 필요한 거지 한탄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다 보면 암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게 누구 탓이냐 이겁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기 업보죠. 그걸 과거의 업보라고 하지만 과거도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현실에 몸을 가지고 나오면서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을 짊어지고 나왔으니 과거가 어딨습니까? 과거가 어딨느냐고요. 그래서 현실에도,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됨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다. 그러니 생사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몸뚱이가 가을 이파리 떨어지듯 헤딱 떨어졌지만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영원한 거죠.

그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수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허망하다 그러지만 바로 그 물질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생명의 영혼도 무효입니다. 아예 무질서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아주 섬세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고 봅니다.

저 불이 밤이나 낮이나 켜져 있다면 '꺼진다 켜진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줄을 여러분의 자성불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본래 자성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체험을 하고, 구르고 구르며 피나는 경험을 쌓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세밀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정이라는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이 귀합돼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면서 사량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사는 처지가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여러분은 백지장 한 장 사이, 한 찰나에 알 수 있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발을 해서 문화 문

☞26면으로 계속

빛 살림
정골요법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25면에서 계속

명으로나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화두 수행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계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마음이 넓어진 데다가 과학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은 벌써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는 건너뛰어라 이거지요. 알고 있는 건 건너뛰어라! 하나와 하나가 딱 맞아서 돌아가야 곡식이라도 갈 수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면 어떻게 물질이 갈려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신력으로는 벌써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수행을 옛날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너무 크고 이거는 너무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알고 있죠. 지금 수행하는 시점에서도 벌써 짐작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뭣고, 이놈이 뭣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한테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도, 벌써 백 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공이 없이 돌아가서 빛보다 더 빠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잡이도 어리석어서 뛰어넘을 줄 모르는데다가 그런 길잡이에 딸려 가는 사람들도 모두 장님이고 귀머거리라면 어떻게 앞으로, 정말이지 마음의 인등을 켜고 밤과 낮이 없이 밝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남들까지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와 자기 가정, 자기 조상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공부해 가지고도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을 건질 수가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건진다 안 건진다를 떠나서 자기란 말입니다. 우선 요 몸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와 둘이 아닌 까닭에 자기 생각 하나에 의해 수십억 마리의 자기 중생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도 자기가 아차 잘못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차 잘못 생각하기 이전에 또 바깥으로 미신처럼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는다면 임시적인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은 이룰 수 없죠. 또 한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아서 그 의식 자체, 이미지에 단편적이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너무 쌓여서 뭉쳐지면 거기에선 악의 존재밖엔 안 나옵니다. 악의 존재에 따라 수억 마리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지 무서운 도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벌을 받든 안 받든 물질 하나에만 한정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가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다 덮을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다 좀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이 자체가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묘한 거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 없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악의 존재를 풀 수도 있고 선의 존재를 풀 수도 있습니다. 무한의 그 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그저 우리가 수행할 때는 악을 버리고 선으로써, 또 우리가 마음을 깨달을 땐 악과 선을 다 놓고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조막대기만 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한자리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자리가 조그맣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가 작다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몸뚱이가 크다고 인간이라는 법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공!' 하면 이름은 주인공이지만 뜻으로 벌써 삼천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마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상, 부처, 중생 모두, 풀잎 하나,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이 평등 진리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진짜로 믿을 때에 바로 주인공 속에 일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배를 해도 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 배를 해도 일 배도 안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 배를 해도 백팔 배가 되고 삼 배를 해도 삼만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일 배도 없으니 어디 가서 찾느냐?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찾을 때에 바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할 때에 '모두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 배 할 것도 없지 않으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엔 없죠, 너무 가까워서. 여러분이 저기 법당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둘이 되죠. 꼭 법당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전에 어느 스님께서 화장실에 갈 때는 가사 장삼은 물론이거니와 두루마기를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따르면서도 나는 오지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죠. '내가 변소에 가더라도 부처가 거기 있는 거고…, 허허허, 더럽고 깨끗하고가 어딨어? 내가 지금 용변 보러 가면 거기 부처가 용변을 보고 있는 거지.' 속으로 이러면서도 어른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또 형님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깍듯이 받들었죠. 그쪽에서 모르든지 알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 공부하는 데는 그 사람이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이 깨쳤고 안 깨쳤고가 나하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나왔으니까 오직 전체와 함께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같이 동등하게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둘 아닌 자비의 행, 참선의 행을 하며 그대로 행선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굳혀야 하는 거지 남이 잘하든 우리가 무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뜻을 깍듯이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이 그토록 진하죠.

왜냐하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저 몸뚱이를 빌려 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때렸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리게 했으니, 그 사람을 괜히 수고하게 만들었으니 더욱 미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더라도 '아하, 감사하구나.' 또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도 '아유, 감사하구나. 이것이 바로 저 몸을 빌려서 수고롭게 하니 내 이거 미안해서 견딜 수 있나. 참, 주인공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고가 없으니 모두가 자비요, 지혜요, 바로 사랑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 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으로 결집해 놓은 것은 부처님께서 그때 시절의 방편을 써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방편은 지금 시대의 방편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경전은 못 봤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내가 이 방편을 쓰는 거는 현시점에서 돌아가는 대로 맞춰서 쓴 것이니, 이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돌아갈 때는 다시금 그 시대에 맞게끔 방편을 바꿔 써도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그 뜻, 깨달아서 말씀하신 자유인의 그 뜻이 너무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똥을 누었다면 밑을 안 씻을 이치가 없어요. 똥을 누는 대로 그분이 밑을 씻고 일어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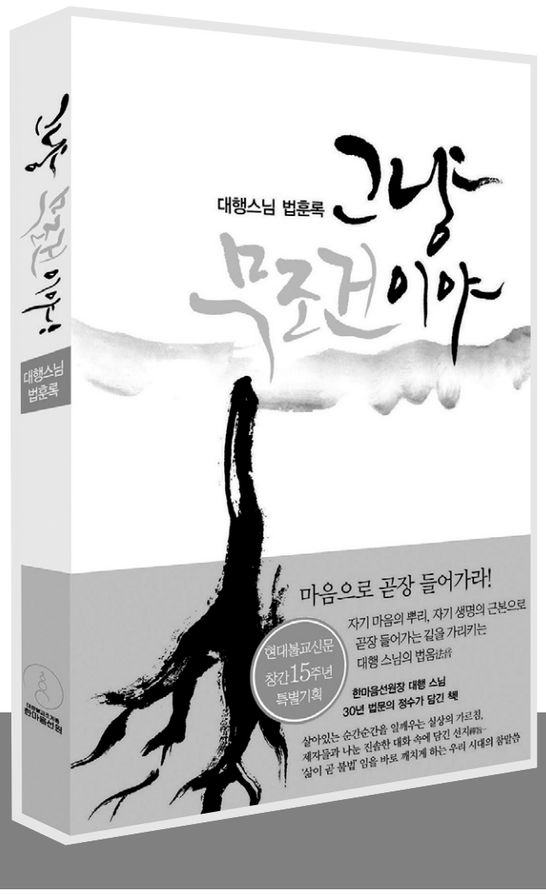
내가 그전에 할 말이 없어서,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 날더러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면 얘기가 나오고 만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해 드리듯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해 놓고 사세요.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긴데, 잘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고 못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니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잘됐으면 잘된 대로 감사하고, 안됐으면 안된 대로 거기서 또 잘돼서 금방 돌아가니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것뿐이라. 그런데 뭐가, 뭐가 잘못돼서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엊그저께 스님네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계율, 이런 거 생각해 본 예가 없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나 하나 죽으면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죽는다는 건 아주 극치적인 얘기입니다. 죽었다 할 때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무섭고 두려운 거, 누가 뜯어 먹을까 봐, 무슨 귀신이 나올까 봐, 내가 뭐 병이 들까 봐, 이런 것은 다 나 하나가 죽으면 붙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로 믿는데 어찌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가루가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내 몸이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치 그냥 죽고 사는 것도 다, 거기를 믿어 버리는데 뭐가 거기 붙습니까? 아픈 거, 뭐 이런 것이 어디에 붙습니까? 그런데 야유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발발발발 떨고 하는 데는 착착 더 붙어요. 그런데 '허, 그런 거 붙거나 말거나다.' 이럴 때는 심심해서도 안 붙어요! 심심한데 그게 붙습니까? 재미있어야 붙지. 하하하… . 아등바등하고 그래야 붙는 건데,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이따 죽으나 더 이따 죽으나 그냥, 그저 너나 나나 뭐, 다 그냥…. '나'가 죽는데 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붙어 봤자 심심해요. 그리고 여기 붙어 봤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성가시게 할 수도 없고 나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싱긋이 웃고 말아 버리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지금 여러분이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8년 7월 1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사회구제에 수행자 진면목 있다

7월 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고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선언이 조계종 5000여 스님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조계종 스님의 전체 숫자가 1만 2000여 분이니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셈이다.

우리 불교계에서 이만큼이나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여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사회구조적인 고통이 출가수행자인 스님들마저도 외면할 수 없었을 만큼 절박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출가자는 단순히 출가자가 아니다. 대승불교의 출가자는 보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보살의 진면목은 서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을 보살답게 하는 첫 번째 서원은, 불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생이 가이 없더라도 모두 구하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그런 서원의 첫 번째 덕목을 외면하고서야 대승불교의 출가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출가는 세속사회를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세속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세속사회의 현실에 대한 강렬한 반성을 의미하며, 불교의 출발점은 그 세속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불교는 세속사회의 현실이 괴로움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세속사회의 현실적 괴로움은 개인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역시 당연히 포함한다.

출가는 사회로부터의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모든 생명이 부처 아닌 존재가 없음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출가수행자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대거 동참하여 뭇 생명이 더불어 사는 삶, 공업중생(共業衆生)이 다함께 행복해지는 사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터전을 파괴하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보살다운 행동이라 할 것이다.

보살의 진면목은 산중에 앉아 차나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어리석은 중생인 우리가 부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중생의 고통에 다가서며,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이고, 그 중생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펼쳐 보이는 동체대비자(同體大悲者)의 모습에서이다.

부처님의 시대와 지금은 많은 점에서 다르다. 개인적인 삶의 고통구조보다 사회적인 삶의 고통구조가 훨씬 더 강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통의 크기야 다르지 않겠지만, 오늘날 사회구조가 개인을 속박하는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이 철저하게 사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구조의 악화나 환경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개인과 사회에 요구하게 된다.

오늘의 시국선언은 몇 가지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첫째는 개인적인 고통이든 사회적 고통이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출가보살의 서원이 굳건히 살아 있음을 발견해서이다. 둘째는 출가보살들의 시국선언이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이다. 오늘 스님들의 시국선언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한 곳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면밀한 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진행여부를 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입장의 표명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불교의 성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회적 구제에 수행자의 진면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전제가 따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전제란 다름 아니다. 동체대비의 넓은 정신은 중생을 보듬어 안는 데 있어서 잘난 중생 못난 중생, 고운 중생 미운 우생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동체대비의 넓은 품은 본분수행을 양식 삼아 커지는 것이라는 점도.



사부대중 칼럼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사찰과 NGO 손잡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우리 민중의 귀의처가 되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었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근저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60~70년대 산업화에 성공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승리로 인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후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를 일반적으로 NGO라고 하는데, NGO란 비정부조직을 지칭한다. NGO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서 제1섹터인 국가(정부)와 제2섹터인 시장(기업)에 이은 제3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교종단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1970~1980년대부터 포교에 힘쓴 덕분에 90년대 이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다. 지난 수십 년간 걸친 노력의 결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이다. 이제는 근대화의 뒷자락을 쫓는 수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고 큰 호흡으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GO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제3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의 성장은 제1섹터인 정치사회(국가)와 제2섹터인 경제사회(시장)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받고 있다. 우선 현재 세계적인 정치변화의 방향이 통치(統治)에서 공치(共治) 또는 협치(協治)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와 기업, 언론, 종교 등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기도 하여 기업과 시민단체적 성격이 결합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언론영역에서도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대안매체가 등장하여 민주적 공론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여론형성을 위한 시민 개인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제3섹터인 시민사회는 이제 제1, 제2 섹터와 의존 또는 견제(비판)하는 관계에서 분명한 자기영역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협력해 가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종교의 관계에서도 기존의 의존과 협력을 넘어 또다른 의미에서 비판과 협력의 관계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불교계는 NGO가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그것을 창조해 나가가기 위해 현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풀뿌리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가 NGO영역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역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에서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문화운동이다.

특히 불교신행의 현장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불자들이 불교적 신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불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불자들은 가정과 사찰에서 스스로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리더십을 기르고 나아가 지역의 문제 또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NGO들과 연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에서도 신행활동의 폭을 넓혀서 법회와 교리 공부 외에 불교적 입장에서 현실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여성불자들이 관심분야를 확장하고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찰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NGO들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신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로 자녀 교육의 부담을 어느 정도 마친 중년여성으로 자녀양육으로 단절되었던 사회와 새롭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연령층이다. 이들은 직업적 생활적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재창조하여 사회적 공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다면 교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 설

조계종 5000 승려의 선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소속의 5000여 승려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했다. 조계종 승려의 절반 정도가 선언에 참여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뜻을 잇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언문에 동참한 스님들의 숫자가 5000에 이른다는 것은 조계종단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시국 사안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동참한 예는 없었다. 4대강 개발의 문제점에 많은 스님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4대강 중 특정 구간 1곳을 시범 지정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보자는 제안을 내놓은 점이다. 지금처럼 속도전을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경고이며, 동시에 정부에도 한발짝 물러날 명분을 주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시범 추진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안이다.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문화일보, 6. 28)를 보면, '반대의견을 수렴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답이 69%로 가장 많았다.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16%,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9%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식 4대강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여론조사마다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 6 · 2지방선거에서도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상황이 이렇다면 한발 물러나는 것이 용기있고 지혜로운 처사다.

불교공약 완료 시기 밝혀야 한다

다음 달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난다. 본지가 이 대통령의 불교공약 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불교문화재 연구 · 복원 사업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약(公約)은 실행하겠다고 밝힌 약속이다. 선거 때 표를 얻자는 취지만 이루면 된다는 계산으로 공약을 내놓고는 당선 후에는 모르쇠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보다 더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 공약이다. 선거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공약' 때문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요구를 정책화하여 달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인 만큼 사회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공약은 빌 공자 공약(空約)'이라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으며, 정치 혐오증을 유발했다.

임기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후반기에 이를수록 공약의 이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나아가 완료 시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형성된다.

불교계도 공약했으므로 지키겠지 하며 기다려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절반의 책임은 불교에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6월 종교인들이 남북정상회담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촉구했듯이, 대북정책의 전향적인 방향 선회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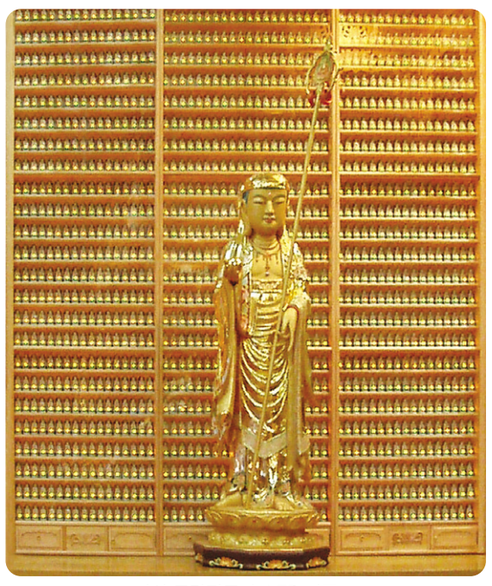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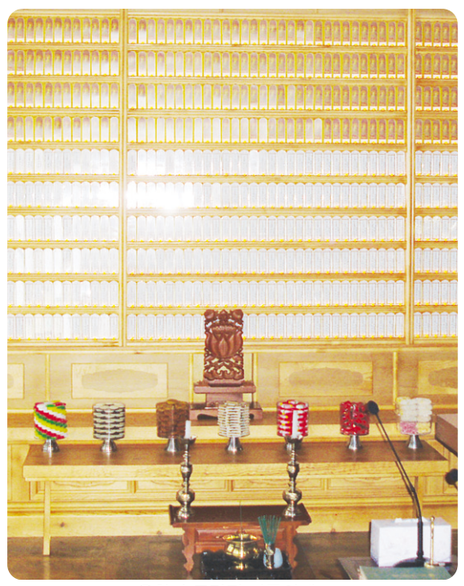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아름다운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단등


영가등


종등


종등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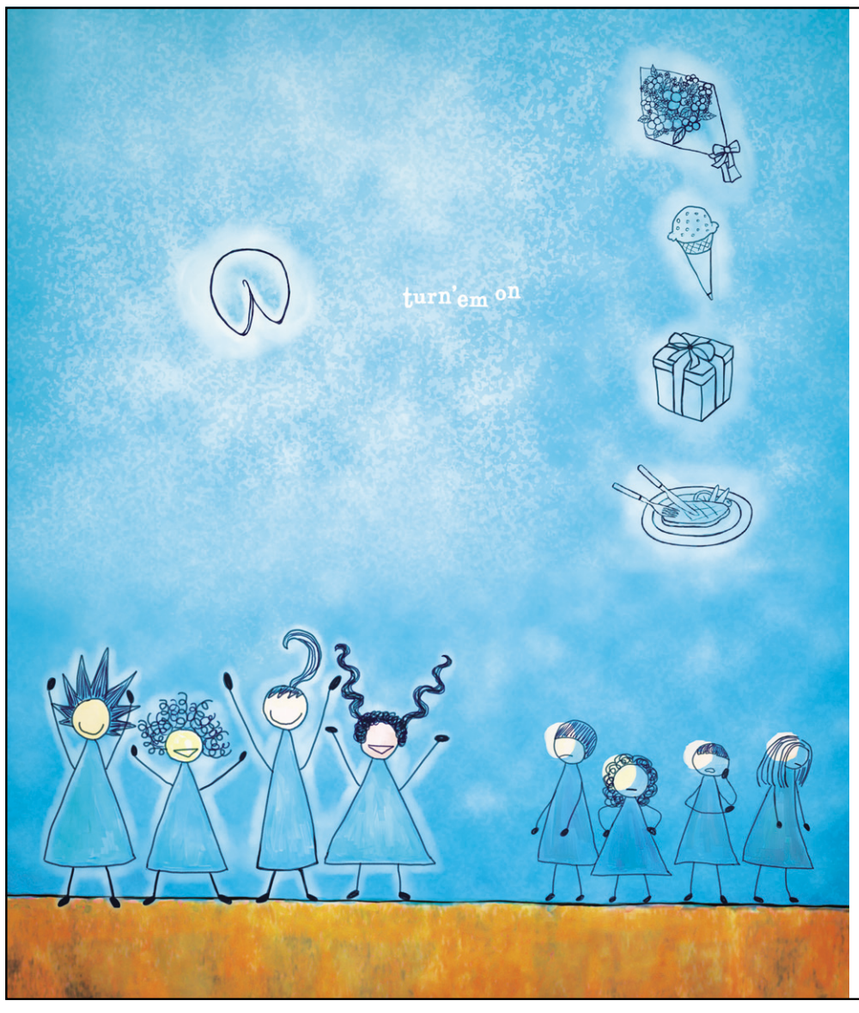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불샵 현대불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